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역사!!



재림 이야기 | 재림의 징조들 | 성경 해석의 중요성 | 기독교의 특징 : 예언 | 사탄 문제 | 왕국과 교회  
환난기 | 다니엘의 칠십 이레 | 마태복음 24-25장 | 계시록의 구조 |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왜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 휴거 | 재림의 두 단계 | 노아의 때와 같다 | **베리칩과 짐승의 표** | 포도즙 틀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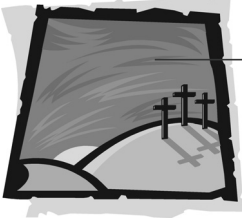
# 재림과 휴거

## 바로 알기

Rightly Dividing The Second Coming and Rapture

 그리스도 예수안에

# 목 차



1. 재림 이야기 .....	2
2. 재림의 징조들 .....	7
3. 성경 해석의 중요성 .....	10
4. 기독교의 특징: 예언 .....	14
5. 사탄 문제 .....	15
6. 왕국과 교회 .....	18
7. 환난기 .....	24
8. 다니엘의 칠십 이레 .....	29
9. 마태복음 24-25장 .....	38
10. 계시록의 구조 .....	44
11.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	50
12. 왜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	56
13. 휴 거 .....	60
14. 재림의 두 단계 .....	69
15. 노아의 때와 같다 .....	75
16. 베리칩과 짐승의 표 .....	76
17. 포도즙 틀 심판 .....	81
18. 결 론 .....	86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 9:27-28).

이 책자는 2012년 8월 15일에 사랑침례교회에서 행한 '재림과 휴거' 세미나를 요약한 것입니다. 홍성인 형제님께서 4시간 강해를 녹취해 주셨고 재림/휴거 그림은 유준호 형제님이 그려 주셨으며 김대용, 장용철 형제님께서 원고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자료를 원하는 분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저자의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3&write\\_id=107](http://www.cbck.org/bbs/board.html?board_table=sermon3&write_id=107)

#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 *Second Coming and Rapture*

이 책자의 원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제목이 ‘재림과 휴거’이다 보니 저자가 어떤 선정적인 것을 소개하여 독자들을 자극하거나 혹은 공포를 조장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입니다. 이 책자는 재림과 휴거를 설명하면서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내어 보여 줄 것입니다. 특히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무리하게 억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그대로 볼 수 있게 명쾌한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도 성경이라는 숲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개개의 나무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고 시대별로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나누면서 교회에 적용할 것과 이스라엘에 적용할 것을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 1. 재림 이야기

요즘에는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영화들이 자주 개봉됩니다. <2012>라는 영화는 마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을 근거로 2012년에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벌써 2014년이므로 이런 주장은 이미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그런 기사나 영화로 인해 세상이 한때 떠들썩했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는 외계의 거대 함선이 지구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것이 모티브입니다. 홍보용 포스터에는 사람들이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고, 이것은 얼핏 보면 마지막 때의 휴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외계인의 거대 함선이 사람들을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성경의 휴거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라고 세뇌당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노아>라는 뉴에이지 영화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에 모티브를 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단순히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것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사탄 마귀인 루시퍼를 찬양하는 반성경적 영화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유에 근거해서 ‘외계인이 온다’, ‘UFO가 내려온다’, ‘지금 세상은 끝나고 신인류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공포를 조장하며 성경의 재림과 휴거를 나쁜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미디어들이 이모저모로 급속도로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 통화의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며 현금 자체가 없어지려는 추세를 보면서 혹시 베리칩 (VeriChip)<sup>1)</sup>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또 베리칩을 근거로 혹독하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대개 교회 성도들이 7년 환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구호를 내걸고 성도들을 극단의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이런 목사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유지될 줄 알고 피눈물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보며 뿌듯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과 교계의 이런 비성경적인 실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알려주어야 하기에 이번에 이 책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딤후1:7).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외치며(히13:6) 주님의 평안 가운데 바르게 읽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미숙한 성도들의 경우 재림과 휴거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두렵고 공포감이 생기며,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것이 맞는 것 같아 여기저기 교리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1) 베리칩: 생체 검증을 위하여 사람의 피부에 삽입하는 체내 이식용 마이크로 칩. 쌀알만 한 크기로 128개 정보 문자와 데이터 전송용 전자 코일, 동조 콘덴서 등이 실리곤 유리 튜브 속에 들어 있다. 무선 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사용하며, 약 1미터 거리에서 해당 스캐너로 칩 데이터를 읽는다. 처음에는 의료 경고용 팔찌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 인명 구조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의료는 물론 보안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베리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의논할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엡4:13-14)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샤머니즘과 칼빈주의 등이 결합하면서 ‘행위 구원’의 뿌리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림과 휴거 이슈를 가지고 ‘7년 환난 통과’ 교리로 성도들을 내모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정확한 교리를 알고 싶어 하지만 막상 교회는 가르쳐주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비성경적인 재림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sup>2)</sup>

이들의 주장은 결국 주님의 은혜와 내 행위가 결합하여 7년 환난기 - 일부든 전체든 - 를 통과해야 휴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휴거를 포함한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무료로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를 더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는 비록 의도는 좋게 보여도 결코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살후2:1-2).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2) 다음(Daum)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가장 대표적인 재림 카페이다.

있으면 전쟁, 지진, 기근, 역병, 베리칩, 세계단일통화, 종교통합, 재림 관련 각종 뉴에이지 영화 및 미디어 등을 접해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히13:5).

세상이 더욱 더 타락하고 이런 징조들이 더욱 더 가속화되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가 사실은 우리들의 전성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갈 일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하고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노동이며 가산을 다 팔아 없애고 직장 버리고 교회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누가 가르친다면 어서 속히 그런 속박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 2:11-13).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려면 불안과 공포와 걱정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그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책자를 읽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분은 속히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 재림의 확실성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얼마나 확실하게 말할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려 하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초림 사건들 - 그분의 십자가, 피, 부활, 은혜 등 - 에 중점을 두면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덟 배나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교리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 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 교리 다음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교리가 바로 재림 교리입니다. 총 218장으로 구성된 신약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려 31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성경 1장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5회 정도 나음을 뜻합니다. 빌레몬서, 요한2서, 요한3서, 갈라디아서 등을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의 나머지 모든 책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성경대로 성취될 교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직접 20회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39절, 마태복음 24-25장,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등에 주님의 재림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9장 28절을 포함해서 50여 회에 걸쳐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고 특히 맨 마지막 장인 22장의 마지막 구절 중 하나인 20절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데도.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계22:20).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요, 확신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재림이 있다, 없음을 논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를 벗어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 9:27-28).

예수님의 초림의 핵심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 사람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은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과 분리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冠)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7-8).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록을 읽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계1:3).

계시록 자체를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하고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특히 이 재림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성도의 삶은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벧후3:10-14).

## 2. 재림의 징조들

이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징조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거닐던 가나안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떠돌아다녔지만 드디어 1948년 5월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 나라를 세우는 때가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곳곳에서 말합니다.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때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의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사 11:11-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구(舊) 예루살렘 즉 솔로몬의 성전 터가 있는 구역을 탈환하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sup>3)</sup>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천주교회와 또 천주교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개신교) 교회들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같은 주장은 보통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 불리는데 이것의 핵심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복과 약속들을 대신 차지한다는

3)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Temple Institute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templeinstitute.org/>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 등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그 결과 대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지합니다. 로마의 교황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든 정치/종교 세력을 통합/확장하여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이 같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마귀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로 전 세계 뉴스의 핵심은 중동의 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 EU 등의 행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시점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쌀 때니라(슌12:1-2).

이 말씀 이후로 스가랴서 12-14장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역시 36-3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마겟돈 전쟁 등을 다루고 40-48장은 환난기 이후의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지을 성전과 제사장 체계 확립 및 12지파의 땅 분배 등에 대해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역시 30-31장에서 이스라엘의 7년 환난기 고통과 궁극적인 회복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는 9장, 26-35장, 62-66장 등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역시 2장, 9-12장에서 세상 왕국의 변천과 메시아 왕국의 확립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활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바로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숭배를 받을 저 성전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어질 물리적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이 세상에

진화론이라는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는 노아의 때와 룻의 때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의 특징은 한 마디로 동성애의 창궐입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동성애가 열렬히 환영받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동성애를 옹호하며 권력자들이 공공연하게 동성애자들과 공공장소에서 행진을 하고 또 이것을 공공 TV가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인간 복제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조하고 복제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람의 복제는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의 도덕이 붕괴하는 때입니다(딤후 3:1-7).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모든 일이 악한 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기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청소년들도 양심의 가책 없이 파리 죽이듯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시킵니다. 앞으로 한 십 년쯤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한 약육강식의 원리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진화론이 전 세계에 파급되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부의 쏠림 현상으로 가장 크게 드러나며, 현재 전 세계는 대륙과 대륙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양극화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빈부의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문제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게 될 때 이 모든 것의 해결사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정치, 경제, 종교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리라고 약속할 것이고 불신 세상은 그를 인류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를 그들은 '뉴에이지' 즉 새 시대라고 하는데 현시대의 모든 일은 뉴에이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과학 기술과 여행이 크게 발달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담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단12:4).

비행기가 나온 지 이제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까지 가는 데 13시간이면 족합니다. 한국도 KTX가 개설되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주 왕복선이 생겨 돈만 있으면 우주도 며칠 내로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운행이 빨라졌습니다. 또한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전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은 50년 전의 집채만 한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너무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도 힌두교도/불교도들의 뉴에이지 범신론 사상이 파급되면서 이제는 세상의 가짜 종교들이 단일 종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연히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에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한국에서도 대형 교단들이 부산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WCC)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영적 간음의 불법을 행하면서도 늑대의 탈은 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런 행사가 국가와 기독교에 도움을 준다고 너스레를 떨니다.

오는 10월 하나님 섭리 아래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WCC 부산 총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WCC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연합한 단체다. 세계에 유엔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WCC가 있다. WCC에는 약 5억 9000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WCC 총회는 7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 한국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년 1월 29일).

뉴에이지 시대에는 교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배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빌리 그래함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원시 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에서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가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처럼 비천하게 여겨지는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 3. 성경 해석의 중요성

재림과 휴거 등의 성경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로교의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를 고수합니다. 사실 이런 신학 체계에 쫓아 있는 분들에게는 재림과 휴거라는 교리 자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자는 보통 ‘전천년주의’라고 하고 후자는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이 문제 역시 계시록 19-20장을 보면 초등학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답이 뻔한데도 자기 견해를 꺾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으며 이런 분들에게도 재림과 휴거를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7년 환난기의 일부나 전체를 통과한다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모두 휴거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보통 ‘환난 통과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환난 전 휴거’라고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 시대의 징조



또 어떤 분들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였으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펴는 것일까요? “현시대 성도들이 환난기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되느냐?”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며 불안에 빠져 심지어 정신 질환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른 데서 생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지구)을 포함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출20:11). 여기의 엿새는 도대체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여기의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같은 하루일까요? 아니면 20-30억년도 될 수 있는 긴 기간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속이던 마귀가 7년 환난기 이후에 붙잡혀 1,000년 동안 바닷없는 구렁이에 갇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 땅의 민족들을 모아 전쟁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불호수로 떨어져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2절부터 7절에는 1,000년이라는 말이 매절 한 번씩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이 1,000년은 정말로 1,000년일까요? 아니면 영원무궁토록 긴 기간일까요? 이 1,000년이 영원무궁토록 기간이라면 어떻게 마귀가 그 1,000년의 끝에 잠시 풀려나고 그 뒤에 불 호수에 던져져서 또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7장에는 소위 '마른 뼈 환상'이라 불리는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대언자 에스겔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숨이 그것들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그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과 살과 살갓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결국 숨이 들어가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뼈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부흥사들은 성도들이 과거에 이 마른 뼈들처럼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받아 살게 되어 주님의 일을 하는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능한 해석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답은 바로 그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겔37:11-12).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 있던 그들을 친히 무덤에서 일으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이스라엘의 온 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땅은 어디일까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하라(겔37:25-28).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의 땅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그때에는 다윗이 부활해서 그들의 왕이 되고 또 그들 주변의 이교도들 즉 이방 민족들이 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죽어 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으로 되돌아오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윗이 부활하며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는 이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땅은 저 팔레스타인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마다 성경을 달리 해석하게 되고 그 결과 교리가 왜곡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6일입니다.

이때의 하루는 30억 년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시는 기간은 창조 때나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시간의 하루입니다. 그렇게 옛새 동안에 우주를 무(無)에서 유(有)로 만들지 못하는 분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죽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부활시키고 또 살아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갑자기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온 세상과 우주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말씀에 의해 무(無)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견해는 다 사람의 의견입니다.

계시록 20장의 1,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0년은 우리가 아는 일 년이 천 번 있는 1,000년입니다. 이것 외의 다른 해석은 다 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계21:1).

이와 같이 에스겔서 37장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으면 거기의 '이스라엘의 온 집'은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고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이며 그때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해석 역시 교단이나 교회나 교주나 전통이 만들어 낸 오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한 것들을 명백하게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통 '영적 해석' - 짧게는 '영해'(靈解) - 혹은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영해로 인해 이단들이 생기고 미약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영해에 가장 강한 데가 바로 천주교이며 또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도 영해에 매우 강합니다. 사실 이런 교단이나 교파들의 전통에 따른 자의적/사적 해석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印)을 받은 144,000명이 나옵니다.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계7:4).

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잇사갈, 스블론, 요셉, 베냐민 지파 등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이 봉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12지파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즉 그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살다가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면에서 계시록이 유대인과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계15:3의 모세의 노래 등 참조).

이처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서로의 생각대로 영해하면 성경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며 특히 미래의 예언에 대한 해석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면서 수백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혼동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예언의 경우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과 휴거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바르게 풀릴 수 있습니다.

#### 4. 기독교의 특징: 예언

이제 잠시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 안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는 모두 사람이 만들었으므로 감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예측했다가 후에 오류로 드러날 경우 그 종교 자체가 설 수 없기에 세상 종교에는 예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다루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담고 있는 성경은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백 구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적어도 125회, 재림에 대해서 적어도 329회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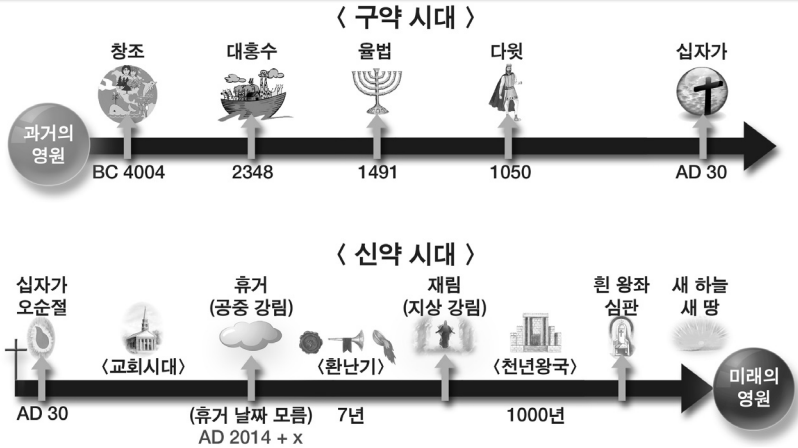
성경 전체를 볼 때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입니다. 이 둘이 타원의 두 초점처럼 성경 전체의 초점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류 역사 타임라인에 대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영원(永遠)이 있습니다. 영원은 사실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유한성을 지닌 사람은 결코 생각해 볼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이 바로 영원이라는 차원입니다. 이 영원의 어느 시점에서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유한 개념인 시간을 만드시며 온 세상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창조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가 출생하고, 그로부터 약 1,00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하며, 그로부터 약 1,000년 지났을 때 다윗이 출생하고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총 4,000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건별로 인류 역사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C 4,004년경에 창조가 있었고 BC 2,348년경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1,491년경에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율법이 수여되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뒤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뒤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앞으로 어느 시점에 휴거가 발생하면서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7년 환난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불신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흰 왕좌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 인류역사 타임라인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유한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의 영원이 열립니다. 국어 교과서나 다른 문학 책을 읽듯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이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들이 교단 신학과 같은 두꺼운 커튼으로 이런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므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불쌍한 성도들이 매우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그렇습니다! 마귀는 복음뿐만 아니라 구원, 재림과 휴거 및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핵심 교리들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립니다.

## 5. 사탄 문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 과거의 영원의 어느 시점에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존재는 루시퍼(Lucifer)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그 당시 루시퍼는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존경을 받으며 큰 위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면서 결국 타락하여 대적하는 자 곧 사탄(Satan)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루시퍼를 엄벌해서 파멸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셋째 하늘의 영계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반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 그런 반역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시간과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현재까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특별 계획의 산물인 사람과 이 땅을 망쳐 놓을 수 있으면 망쳐 놓으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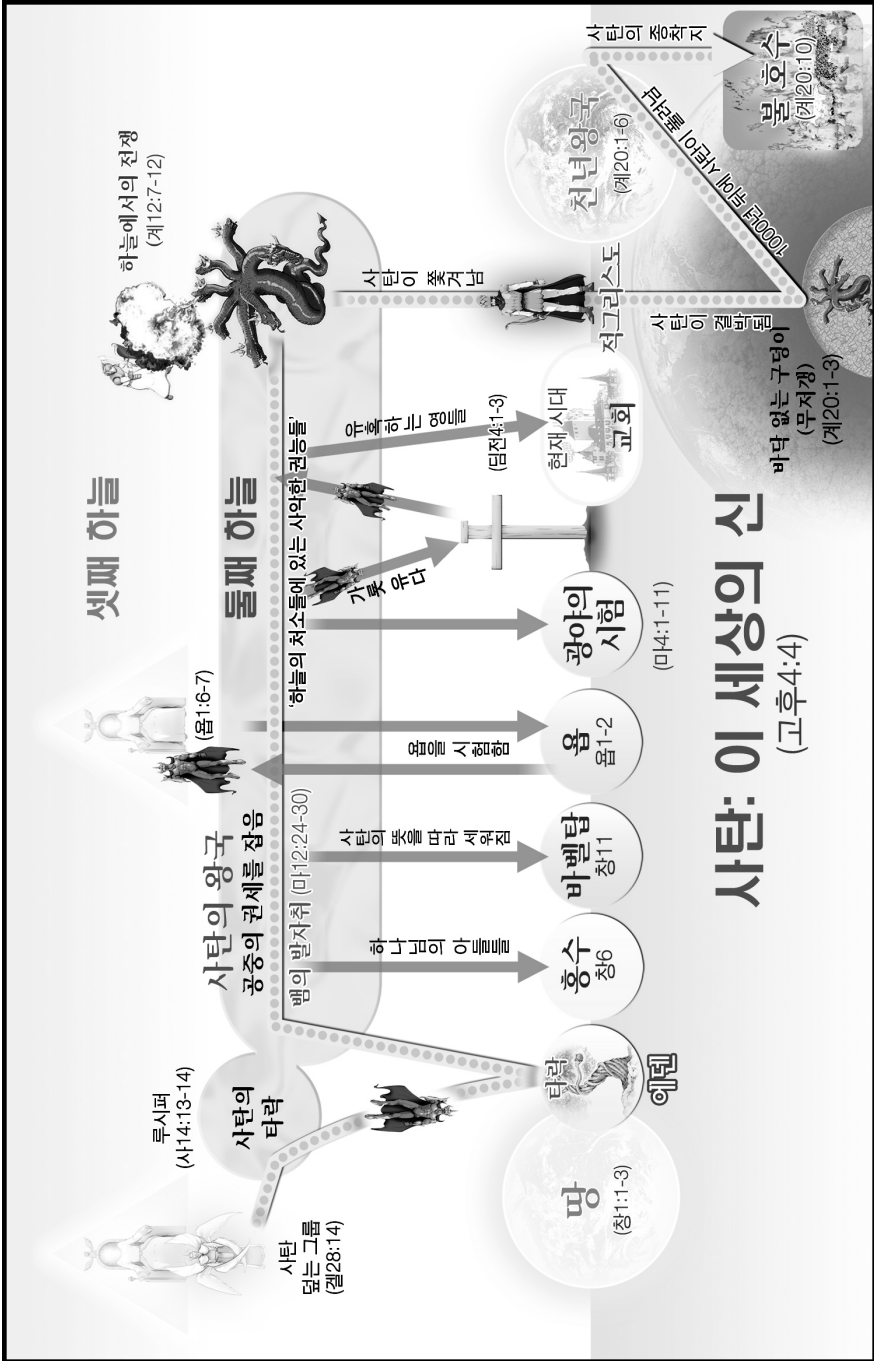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먼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보듯이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을 완전히 망쳐놓기 위해 자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고 이로써 유전자 변형을 통한 잡종 거인들을 생산해 냅니다. 홍수 이후에도 그는 니므롯이라는 반역자를 통해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은 중단됩니다(창11). 그 이후에도 그는 메시아 계보를 멸절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유다 왕조에서는 아달라라는 부정한 여인을 시켜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멸절시키게 합니다(왕하11).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존하셔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러면서 결국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그는 헤롯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하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광야에서 직접 그분을 시험합니다(마4). 그리고는 가롯 유다에게 직접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의 교회시대에 사탄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중세 1,000년 이상은 카톨릭 교회라는 비성경적 단체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극도로 핍박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통합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획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가 바로 7년 환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결국 사탄은 환난기 중반에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자신의 분노를 극도로 퍼붓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rod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계12:12).

이렇게 7년 환난기가 끝나면서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 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의 끝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 대적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던 대적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삼켜지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대언자는 불 호수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과 하늘에서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시간이 생긴 이후로 지난 6,000년 동안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과 루시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장 강한 창조물인 루시퍼라도 창조자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신약시대의 교회를 사용해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엡3:10).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큰 갈등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약 6,000년이라는 기간은 그분과 그분이 지은 영적 존재들의 눈앞에서는 불과 6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단지 6일밖에 되지 않는 바로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미래의 영원이 시작되면서 하늘의 영계에서는 영원무궁토록 다시는 루시퍼의 반역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광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또다시 오셔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6. 왕국과 교회

모세의 율법 수여 이후 구약시대에 전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 10:32)

지금의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인 교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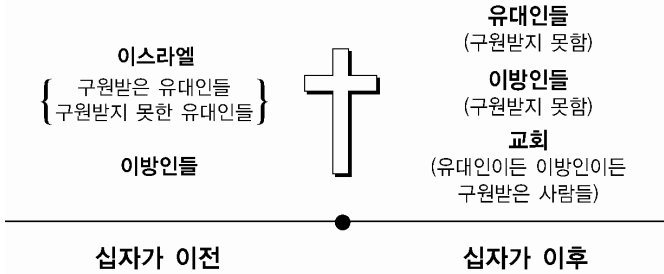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뒤 이집트 탈출을 통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 분배 이후에 이들은 재판관들의

## 교회 시대 사람들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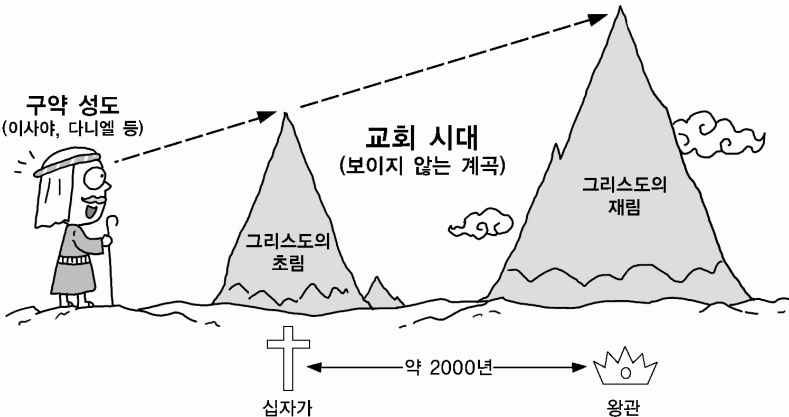
(고전10:32)



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론 땅에서 포로생활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다가 심지어 십자가에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성전이 훼파되면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저 땅에 모여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7년 환난기를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과 또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환난기가 끝난 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에는 그때에 태어난 자들 중 많은 사람들과 마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패하고 이 땅에서의 역사는 마감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볼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지금의 교회 시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산꼭대기로 보였고 그 둘 사이의 계곡 즉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료 상속자가 되는 교회를 가리켜 신비(mystery)라고 기록합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매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엡3:5-6).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상에 심취하여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모질게 핍박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부지런히 탐구하였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벧전1:11).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 곧 초림과 재림인데 구약성도들에게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사6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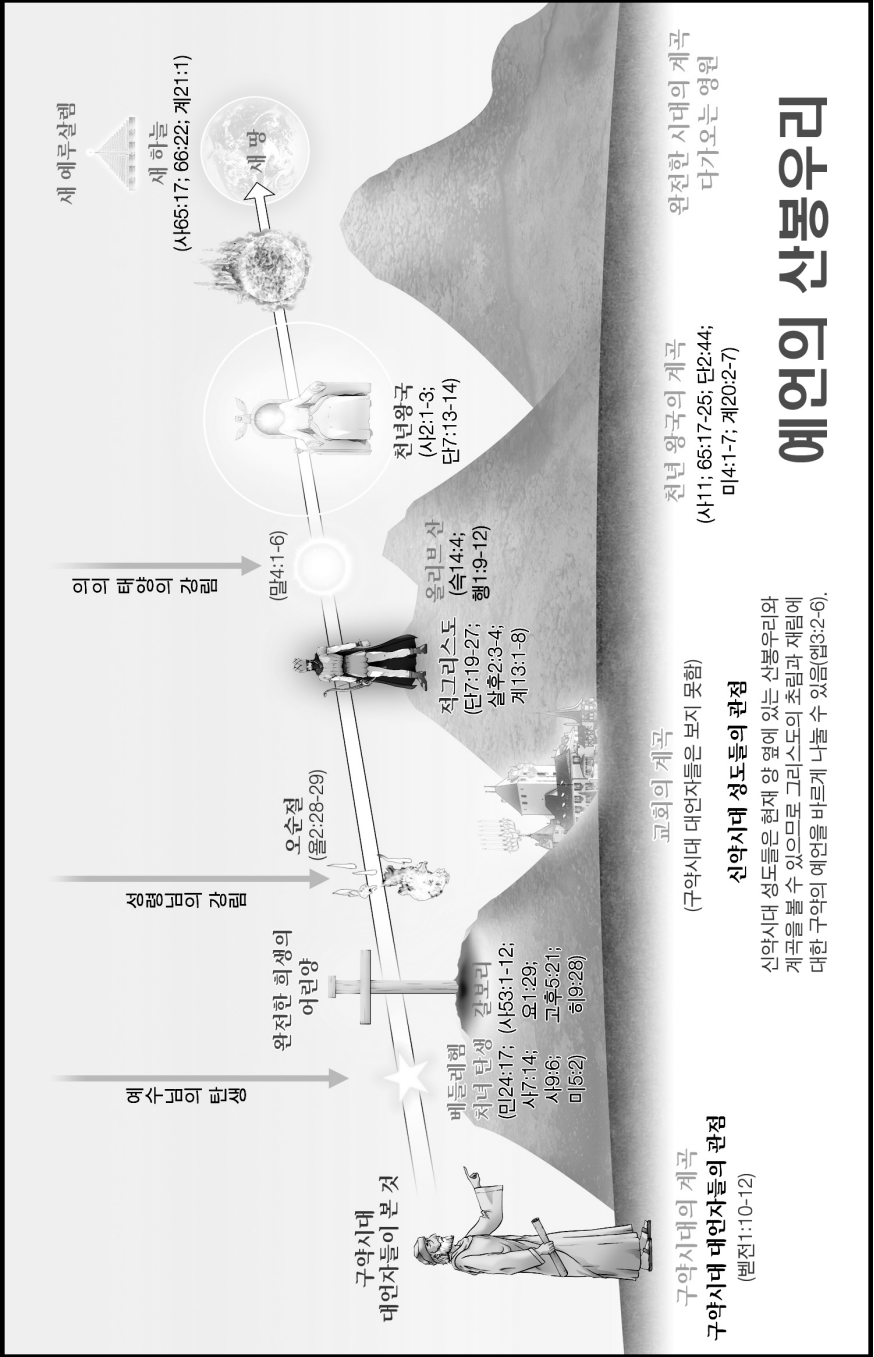
여기의 '나'는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즉 그분은 초림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재림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합니다. 사61:2는 전자를 '받아 주시는 해'로, 후자를 '원수 갚는 날'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히브리서 9장 27-28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중간기가 없습니다. 초림 다음에 곧장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서의 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렘23:5).

이 구절에서도 앞의 '가지'는 초림의 예수님이고 뒤의 왕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 예언의 산봉우리

완전한 시대의 계국  
다가오는 영원

천년 왕국의 계국  
(사11: 65:17-25; 단2:44; 미4:1-7; 계20:2-7)

교회의 계국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보지 못함)

신약시대 성도들의 관점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재 양 옆에 있는 산봉우리과 계곡을 볼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제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나눌 수 있음(렘3:2-6).

구약시대의 계국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관점  
(벤전1:10-12)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23:39).

이 구절을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18편은 5절부터 29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떼 내어 재림에 적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곧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있을 유대인들의 환난기를 설명하시며 25장에서는 자신의 지상 강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25장에서 그들에게 신비로 남아 있는 교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도 1-5절은 초림을 말하며 6-16절은 재림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도 6절은 초림을 이야기하며 7절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도 15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16-40절은 재림을 설명합니다.

시편 48편 18-23절을 보면 18-20절은 은혜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21-23절은 심판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 나옵니다. 이 신상에 대해 다니엘은 그것이 세상 왕국의 변천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신상의 위에서부터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왕국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왕국 이후에는 우리가 알듯이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지만 다니엘은 곧바로 이 왕국들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 대해 말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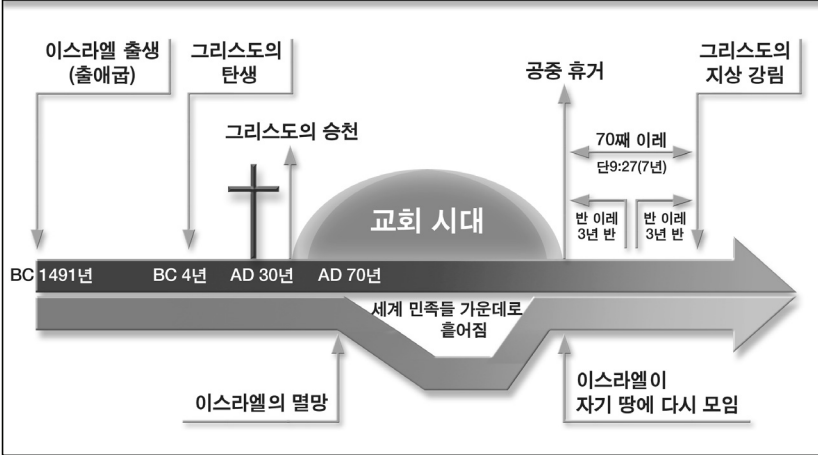
다니엘에게는 교회 시대가 계시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로마 시대 다음에 2,000년의 교회 시대 없이 그는 곧바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7장에서도 이어집니다. 1-8절에서는 세상 왕국들이 네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9-14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이때 교회 시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저 유명한 ‘다니엘의 70이레’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도 24-26절 초반부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부터는 갑자기 교회 시대를 뛰어넘더니 곧바로 적그리스도와 환난기가 등장합니다.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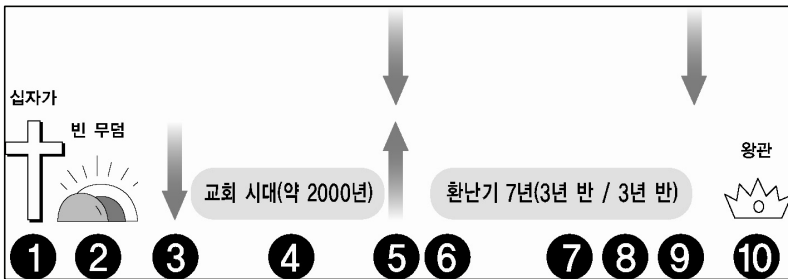
# 교회와 이스라엘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된 시간표에는 교회 시대가 없고 예수님의 초림 다음에 곧바로 재림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 그 두 개가 하나로 보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예언 해석에서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과 교회 프로그램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구별된 독특한 프로그램이며 결코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 신약시대 정리



위 그림에 나오는 번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아래에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그리스도의 부활(고전15:4; 롬1:4)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고 계심(행15:14).
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채여 올라가’ 즉 휴거되어 공중에서 서로 만나는 때(살전4:13-18): 이 사건은 교회의 휴거라 불리며 교회 시대의 종지부이다.
6. 환난기 혹은 다니엘의 70째 이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모종의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 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임하심으로 끝날 것이다(마 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 20장).

## 7. 환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환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환난은 영어로 ‘tribulation’이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6회 나옵니다(단수로 22회, 복수로 4회). 이 단어는 라틴어 ‘trivulum’에서 나오며 이 말의 뜻은 ‘고난’,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말의 기원은 체질을 통해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알곡만을 추려내는 데서 나옵니다. 곡식은 알곡과 껍데기로 되어 있으며 알곡을 얻으려면 체질을 해서 껍데기를 추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할 때 체질 혹은 도리깨질을 하는데 이 과정이 곡식에게는 매를 맞는 과정이므로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야 알곡만 남게 됩니다.

환난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고 민족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이 있고 이스라엘만 당하는 유일무이한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요16:33)이나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행14:22) 등을 근거로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의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딤후3:11-12). 반면에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할 때의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일무이한 환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은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우상을 숭배하다가 타민족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네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니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신4:30-31).

바로 이 환난이 올리브 산 설교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마24:21).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며 유대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으려면 유대인들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sup>6</sup>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붉은 무슨 까닭이나? <sup>7</sup>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sup>8</sup>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니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sup>9</sup>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렘30:6-9).

이때에는 6절에 있듯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남자들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여인들처럼 허리를 잡고 끙끙대며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또한 그 날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고난의 날이며 그것과 비교할 날이 없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그 뒤에 천년왕국이 되면 다윗이 부활하여 통치합니다. 또 31장 35-37을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영존하는 민족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해석을 버리고 예레미야서 30-31장 등을 교회에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영해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성경이 분면하고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재림 교리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간이 환난기입니다. 환난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테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며 그래서 그 때는 '야곱의 고난의 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기간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알곡들 - 문맥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임 - 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느 정도의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합니다. 1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그 민족들이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또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찢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다(슌12:9-10).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 극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찢른 나' 즉 초림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쓰라리게 슬퍼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12장 전체를 편견 없이 읽으면 누구라도 이때가 마지막 때이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결국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환난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하리라(슌13:8-9).

여기의 '그 온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삼분의 이가 죽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용광로를 통과하는 시련을 겪다가 결국 예수님을 주 곧 메시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인구의 삼분의 이가 죽으므로 700만 명 규모의 사람들이 이 짧은 기간에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유럽 전역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난기 때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적어도 700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 환난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이 환난기가 끝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시리라(슌14:3-4).

올리브 산에 발을 디디며 오시는 이 주님은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뒤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닙니까?

또 그들 [천사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행1:11-12).

14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성경은 단순하고 명백하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왜곡하며 이 모든 것을 영해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 왕국을 예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3:1-2)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왕국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마10:5-7).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들은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롬11:26). 바로 이 일을 위해 환난기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하늘의 왕국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 8. 다니엘의 칠십 이레

재림과 휴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입니다. 위에서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와 환난기의 필요성을 공부했으므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여 신약 성도들의 가장 복된 소망 즉 ‘환난 전 휴거’의 당위성을 제시하려 합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열다섯 살쯤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고 거기서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이 된 상태에서 그는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오래갈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단9:2). 이것을 깨달은 뒤에 그는 9장 3-19절에서 회개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능숙함과 깨달음을 줍니다(단9:20-23).

먼저 가브리엘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 아니라 70이레 (Seventy weeks)라고 가르쳐 줍니다.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단9:24-27).

이 말씀은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레’는 한 주를 뜻하므로 70이레는 490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490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 즉 육십 구 이레(483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 장차 임하는 통치자가 나오면서 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26절 중간에 .....를 첨가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초림 다음에 곧바로 재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뛰어넘은 시간 즉 .....로 표현된 시간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장차 올 통치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로서 나머지 한 이레(7일) 동안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다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즉 3.5일이 지난 뒤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는 주님께 희생물 드리는 것을 금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으로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홍수가 있습니다(계 12:15-16).

다니엘서 12장에는 바로 이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바로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고난의 때이며 그때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는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계12:7-8, 13).

계시록 12장의 사내아이는 5절에 있듯이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입니다. 물론 그 메시아를 출산한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천주교나 개신교처럼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거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맨 끝에 있는 환난기에 이스라엘은 마귀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홍수까지 동원하여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신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이 홍수는 바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홍수입니다(단9:26; 계12:15-16).

이런 부분에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이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휴거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환난기에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단9:27이 말하는 바이며 또 위에서도 소개한 대로 살후2:3-5에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마24:15)

자! 그러면 70이레 즉 490일은 얼마의 기간을 뜻할까요? 다시 말해 490일의 하루는 얼마의 기간을 뜻할까요? 우리는 보통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지만 이런 데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는 때까지 69이레 즉 483일이 지나갑니다. 사실 여기의 하루를 하루로 계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483일은 유대인들의 1년인 36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4년인데 이 기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하루를 일주일로 보든지, 한 달로 보든지, 일 년으로 보든지, 100년 혹은 1,000년으로 보아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 사례에서 하루를 일 년으로 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수기 13-1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자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악한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40일의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하여 그들이 불법의 짐을 지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도록 심판하신 일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민14:34).

또한 에스겔서 4장 4-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법의 햇수를 날수대로 - 각각 390일과 40일 - 계수하셔서 그들이 불법의 짐을 지게 하면서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시는 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것들 [390일]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의 짐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겔4:6).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도 하루는 1년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는 때까지의 483일은 역사적인 자료를 볼 때 483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0이레 즉 70주는 원래 490일인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490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BC 540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 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AD 27-33년경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476년<sup>4)</sup>을 빼면 BC 449-443년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 BC 449-443년경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는 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느



2:1-8). 이런 연대들을 정확히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 시기나 처형 시기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의 환상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시점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69이레 즉 483년(태양력으로 476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프레임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다니엘의 70이레 해석을 위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한 이레 즉 7년입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출생해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은 BC 445년에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인 아다사스다 왕에 의해 내려진 칙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느2:1-8). 이때로부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AD 30년까지는 484년이지만 기원전 1년과 기원후 1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1년을 빼면 483년(태양력으로 476년)이 됩니다.<sup>5)</sup>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0이레의 490년 중 69이레(483년)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이레 즉 7년만 남아 있습니다. 69이레 이후부터 70째 마지막 이레가 시작될 때까지의 공백기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 지는 때' 즉 교회 시대입니다. 마지막 한 이레는 물론 7년 환난기이며 이것이 끝날 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sup>6)</sup>

70이레는 원칙적으로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므로 신약 교회나 신약 성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왕국 프로그램과 신약의 교회 프로그램은 결코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4) 원래는 69이레에 해당하는 483년을 빼야 하지만 성경의 1년은 360일이고 태양력의 1년은 365.25일이므로 유대인들의 483년은 태양력으로 476년이다.

5)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의 성경학자 Robert Anderson은 자신의 저서 <Coming Prince>에서 다니엘의 70이레가 490년임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그 뒤로 Clarence Larkin은 <Rightly Dividing the Word>에서 이것을 확증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Harold W. Hoehner가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에서 이것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 연도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 명령이 내려진 때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이들이 추정하는 이 두 사건의 연도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 다만 확실한 것은 70이레의 490일이 490년이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나머지 한 이레는 7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환난기가 7년으로 정해지며 그래야 그 이레의 후반부 3년 반이 다니엘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단12:7) 또 계시록의 1,260일, 마흔 두 달,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계12:6, 14; 계13:5 등)와 일치한다.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이고 계시록은 봉인이 열린 책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260일이라고 해석해 주므로 우리는 역으로 다니엘서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역시 1,260일이며 따라서 70이레는 490년임을 확신할 수 있다.

6)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성경 바로 보기>와 <요한 계시록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 다니엘의 칠십 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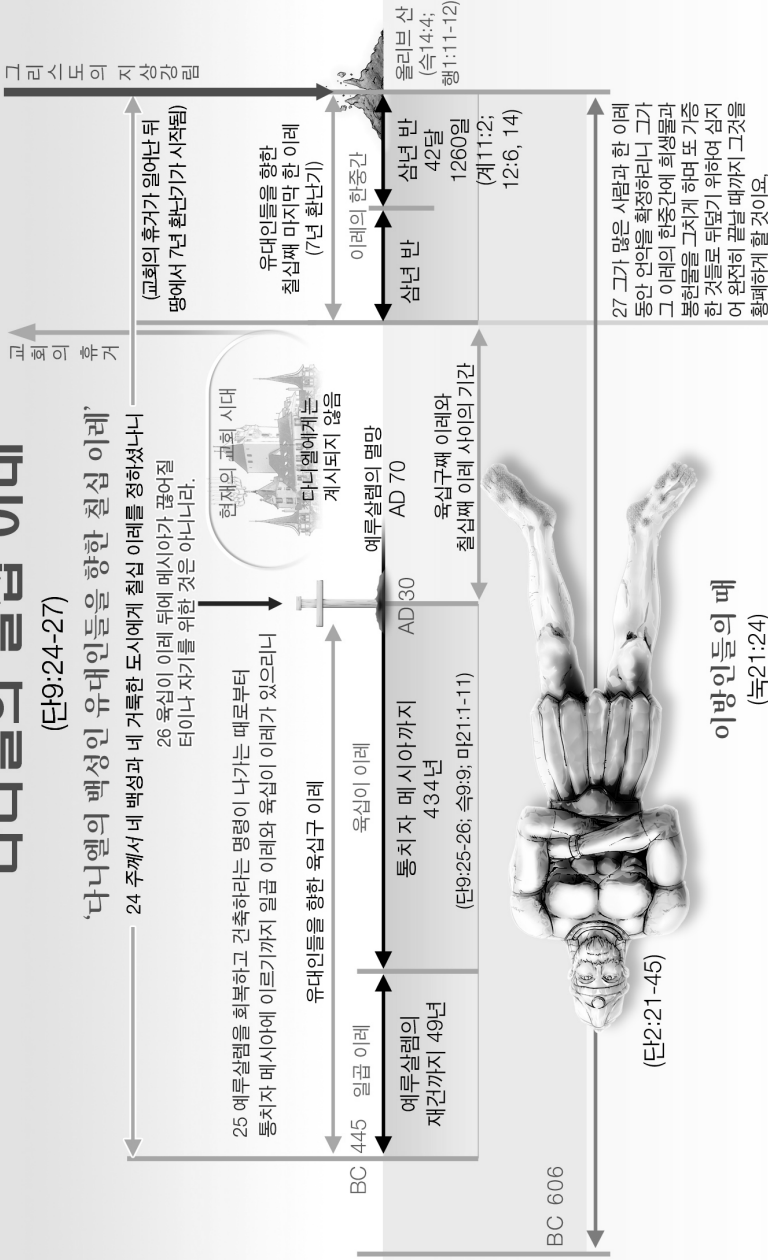
(단9:24-27)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칠십 이레’

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기록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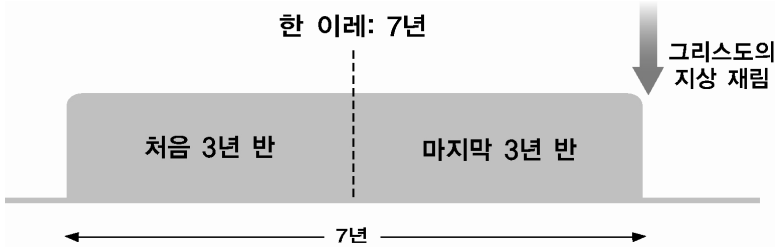
25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의 때 (눅21:24)



공백기 즉 62 이레 후의 공백기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요14:1-3). 이 공백기가 끝나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유대인 역사의 마지막 한 이레인 7년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간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보상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이 열리고, 땅에서는 믿지 않다가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환난기가 시작됩니다. 한편 적그리스도는 환난기 시작 후 3년 반 되는 때에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며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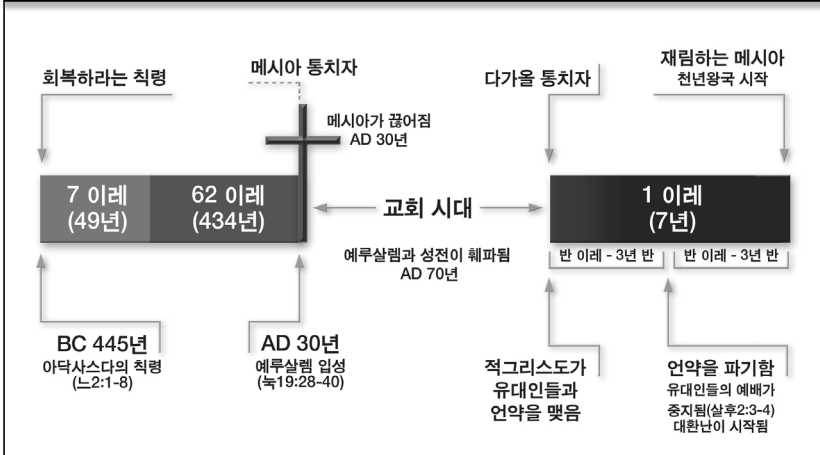
유대인들이 실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후반부 3년 반은 '대환난'(Great tribulation)이라고도 불리며 성경은 이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1. 1,260일(계12:6,14)
2. 마흔 두 달(계11:2; 13:5)
3.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4. 짧은 때(계12:12)

이처럼 다니엘서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 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기를 포함해서 재림과 휴거를 포함한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확신 있게 조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구약성경의 여러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증거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한두 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 다니엘의 70이레

[다니엘서 9장 24-27절]



구절을 이용해 교리를 만드는 이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절대무오한 킹제임스 성경과 단순히 그 안의 기록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겸허하게 연구하고 풀어가려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490년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그중 마지막 7년 환난기는 신약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난기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난기의 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제사장 체제가 형성되어 그들은 구약시대처럼 성전에서 희생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뒤 정확히 3년 반 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피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핍박이 될 것입니다.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기에 유대인들의 삼분의 이가 죽게 되고 7년이 차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끝나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 여기도 문맥으로 보면 유대인임 -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마24:13). 물론 여기서의 '끝'은 죽음을 뜻하는 목숨의 끝이 아니라 환난기의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11:25-27).

사도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로마서 9-11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을 영해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환난기를 거친 뒤 구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기지만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정확히 보여 주셨습니다. 수십 차례 로마서를 읽은 목사들 중에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 배운 칼빈주의와 무천년주의라는 두꺼운 비늘이 그들의 눈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늘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교단이나 전통 혹은 교주가 만들어 준 비늘을 제거하고 평이하게 상식적인 눈으로 로마서 9-11장을 읽으면 누구라도 동일한 결론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뒤에 일어날 일들이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천이백 구십 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네 뿔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단12:11-13).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60일이 지나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11절의 1,290일). 그리고 그 이후의 45일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과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는 양과 염소 민족들을 나누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67쪽 그림 참조). 그리고 이때에 다니엘, 다윗 같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자기 지파에게 부여된 상속 유업 땅에 설 것입니다(단12:13). 물론 읍과 같은 이방인들도 당연히 이때에 부활합니다(욥19:25-27).

### 환난기의 주요 인물

환난기를 주도하는 주연급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의 사람(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라 불림, 계13:1-10; 살후2장)
- 거짓 대언자(둘째 짐승으로 불림, 계13:11-18)
- 용(혹은 마귀, 계12장)
- 심판자 하나님(계6, 8, 9, 16장)
- 이스라엘 민족(혹은 여자, 계12장)
- 세상의 여러 나라들(슥12:9; 14:2)
- 오실 왕(계4-5장; 19:11-16)

환난기 동안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환난기에도 소망이 있는가?

휴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휴거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 번 구원을 거절한 사람에게에는 이후에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근거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을 듭니다. 그들은 휴거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만 환난기 동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은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휴거 이전에 진리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기에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고의로 죄의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살후2:3-9).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 즉 죄의 사람을 경배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죄의 사람을 경배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계14:9)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계14:10-11). 환난기 동안 의도적으로 죄의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긴 자들은 모두 심판과 정죄를 받습니다(살후2:12).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의 등장인물들은 흑과 백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때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계14:6-7), 죄의 사람에게 경배하든지(계 14:9-11)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1. 인류 역사의 어느 때를 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매우 위험하다.
2. 구원의 때는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으려 하는데 내일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누가 보장하겠는가?

3. 오늘날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은 때 즉 핍박이 거의 없는 때에도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때 즉 믿는 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겪는 환난의 시기에 믿으려 하겠는가?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할 것이다. 오늘 복음을 거절하면 내일도 그럴 것이다. 휴거 이전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장차 환난기 때 죄의 사람을 경배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불신자는 대개 내일의 불신자로 남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한 때 진리를 강력히 거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라!
5.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배운 환난기가 바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휴거는 현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곤장 환난기가 시작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이들에게 오신다면(요14:3; 살전4:13-18) 당신도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 성경 교사에게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 9. 마태복음 24-25장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마2:2)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왕국의 표적들을 보여 주시면서 즐기치게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하시지만 그들이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마23장) 곧바로 환난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 줍니다(마24-25장).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25장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밀히 그분께 와서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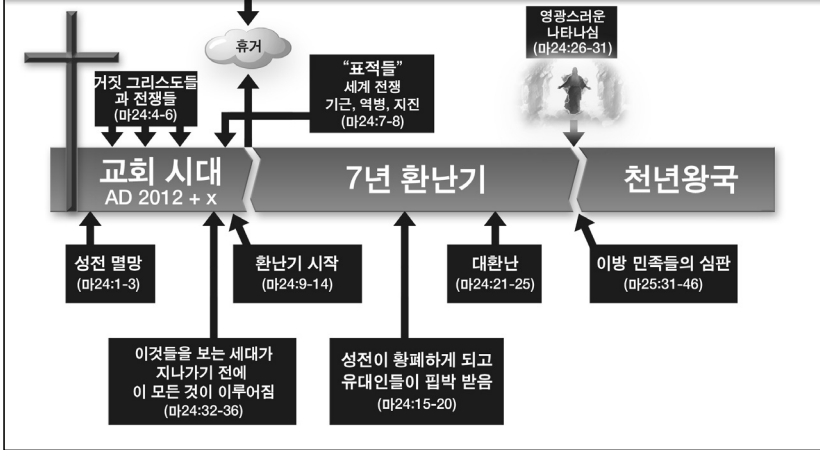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리이이까? 하니(마24:3)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때의 표적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24:9).

여기의 '너희'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들로 구성된 신약 성도들은 결코 여기의 '너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 마태복음 24, 25장 개요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21:23-24).

여기의 ‘이 백성’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그들이 거하는 그 땅 즉 팔레스타인 땅에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시록에서도 증명됩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축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풀은 내버려 두고 축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밟로 짓밟으리라(계11:1-2).

7년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 즉 마흔두 달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한 때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야 합니다(마24:16). 물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유대라는 특정 지역에 있는 자들’ 즉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신약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마24:20-21).

여기 나오는 ‘그들’은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



입니다. 또한 유대의 겨울은 추우므로 그들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반구에 있으므로 유대 지방이 겨울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 국가들은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오직 유대라는 지역에 거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바로 이때가 혹독한 심판이 임하는 후반부 3년 반이고 주님께서서는 21절에서 이것을 ‘큰 환난’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난기가 끝나면서 천체들의 변화가 생긴 뒤 곧바로 주님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마24:29-30).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25장도 마24:3에 있듯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도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마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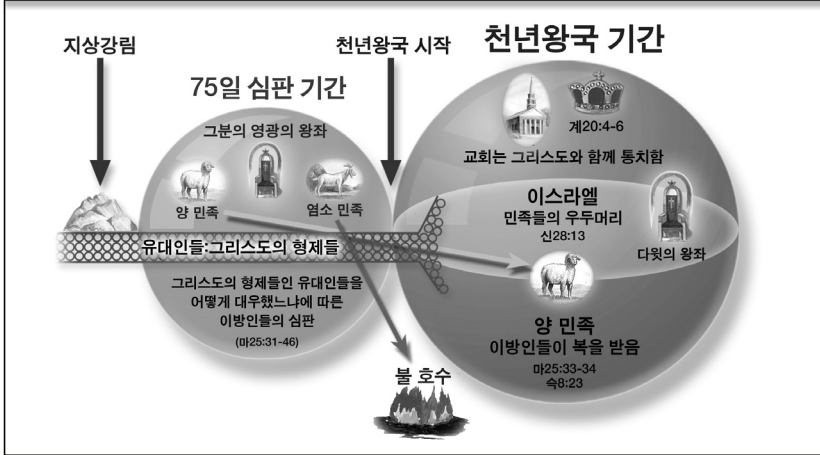
열 처녀 비유를 언급하면서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 떠나가면 등불이 꺼지므로 힘써서 끝까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각 성도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므로 기름이 떨어져서 즉 성령님이 소멸돼서 등불이 꺼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열 처녀 비유의 시작에 ‘그때에’라는 말을 보면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재림 때의 일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 환난기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방 민족들을 분리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공중으로 휴거받아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창세기 초반부의 사람들처럼 거의 1,000년이나 되면서 나무의 수명과 비슷해집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 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 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사65:20, 22).

# 이방인 심판과 천년왕국



환난기를 통과한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 없이 도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곧장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보인 자들은 영존하는 왕국 즉 천년왕국을 소유합니다.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25:34).

이런 식으로 환난기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과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며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자식들을 낳습니다. 처음에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100%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들의 자식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은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천년왕국의 끝에 마귀는 이들을 규합하여 주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이 모든 무리는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때에 교회 성도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며 천년왕국에 거하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열 사람이 나와서 불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슌8:22-23).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슥14:16).

또 이스라엘의 지형이 바뀌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서 생수가 흘러나가 죽어 있던 사해를 살려서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 거하게 됩니다. 또한 사막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 [사해]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겔47:8-9).

또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형들도 크게 변하며 찬송가에 있듯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사40:4-5).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사35:1-2).

메시아가 나타나면서 사35:2; 40:5에 있듯이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욥도 이때에 대해 증언하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에덴동산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모든 짐승이 풀을 먹었고 짐승을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에도 짐승들이 다시 풀을 먹게 됩니다.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떤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사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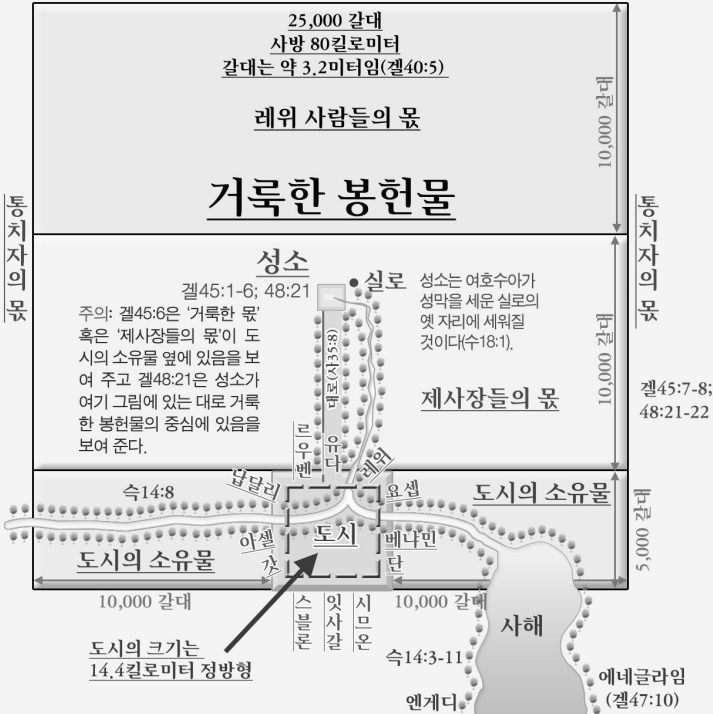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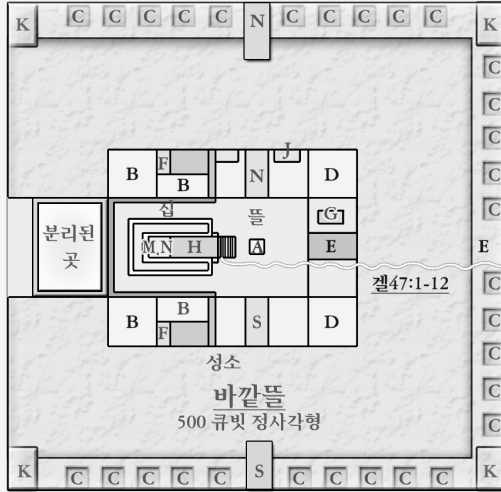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사 65:25).

이런 구절에 나오는 짐승들을 ‘영적 짐승’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 A: 번제헌물 제단
- B: 제사장들이 먹는 곳
- C: 방들
- D: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
- E: 동문
- F: 풀이는 곳
- G: 헌물을 씻는 곳
- H: 성소
- M: 지성소
- J: 노래하는 자들의 처소
- K: 부엌
- N: 북문
- S: 남문

겔40:1-43:27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또한 이때에는 사11:9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보다(합2:14).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슥13:3).

### 10. 계시록의 구조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책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1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계1:19)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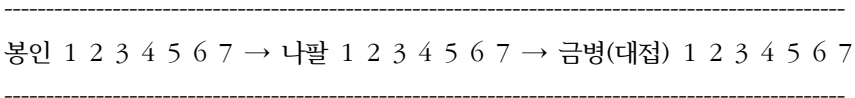
- 요한이 본 것들: 1장
- 지금 있는 것들: 2-3장(요한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 이후에 있을 것들: 4-22장

재림과 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4-22장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금병의 심판으로 구성된 7년 환난기와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계시록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타나고 2-3장에는 일곱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진행될 환난기의 모든 모습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환난기에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금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시간 순서로 배열해서 계시록을 해석하려 합니다.



즉 환난기의 1/3은 일곱 봉인, 그다음의 1/3은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1/3은 일곱 금병 심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총 404절 가운데 278절이 유대교의 요소를 담고 있으며 특히 전형적인 히브리 계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학은 대개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심판은 비슷한 때의 일들을 재차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곧 보여드리겠지만 계시록 자체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봉인	1	2	3	4	5	6	7
나팔(일곱째 봉인)	(일곱째 봉인)	1	2	3	4	5	6
금병							1234567

그러므로 처음 나오는 일곱 봉인 - 실제로는 여섯 봉인 - 은 7년 환난기 전체를 다룹니다. 계8:1에서 일곱째 봉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일곱 나팔은 7년의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다시 3년 반을 다룹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곱 금병은 7년의 거의 맨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병으로 정확하게 쏟아 붓듯이 한 번에 집중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일어나며 순교자들이 생기고 여섯째 봉인을 떼니 지진과 천체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으로 7년 환난기는 끝납니다. 이것은 마24:29절에서 환난기가 끝나면서 천체들의 변화가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니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환난기 중반쯤에 드디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각각 여섯 나팔을 분 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에 환난기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5-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 다, 하니(계11:15)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계 10:7).

한편 일곱 금병은 환난기의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정조준 돼서 이 땅에 쏟아 부어집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는 이들이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10:11).

즉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요한은 다시 대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는 16장부터 다시 일곱 금병 심판을 대언합니다. 일곱 금병의 경우는 히브리 계시 문학의 형태에 따라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7년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적어도 4번 반복됨). 다시 대언해야 하므로 요한은 7년 환난기의 어느 시점부터 다시 대언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7장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144,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4,000명은 14장에 또 나옵니다. 즉 14장에는 또다시 환난기가 다른 관점에서 반복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사탄은 계시록 12장에 있듯이 환난기의 3년 반 되는 시점에서 하늘에서 쫓겨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때부터 환난기가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이 기간에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 17-18장에는 바빌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니므롯이 세운 최초의 단일 세계 국가였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후로 바빌론의 정치, 종교, 문화 체제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르는 온 세상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의 근본이 바빌론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계18:2-5).

마귀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 즉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바빌론 체계 - 정치, 종교, 문화 등 - 가 이때에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자세히 나옵니다, 천년왕국의 끝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다시 죽어 불 호수라는 둘째 사망에 영원토록 던져집니다.

그다음에 21-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미래의 영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년 환난기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부활하거나 휴거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잡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5-18).

부활과 휴거는 또한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잡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전15:51-53).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요, 살아 있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휴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부활과 휴거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요11:25-26)

여기서 죽어도 사는 것은 부활이고, 살아서 그분을 믿으며 결코 죽지 않는 것은 휴거입니다.

## 24장로

그러면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스물네 장로가 있었습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계4:4).

여기의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은 천사나 하늘의 있는 그룹이나 스랍을 가리켜 장로라고 한 적이 없으며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기의 24장로는 분명히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누군가를 혹은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이 24장로들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라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계5:9-10).

이 말씀들로 보건대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3장에서 보면 알지만 흰옷을 입고 금관을 받아 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계2:10; 3:4; 3:18 참조).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금관을 받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冠)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7-8).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인 목사들도 그분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벧전5:3-4).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24장로가 이미 관을 쓰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이 분명합니

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24장로가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4장에서 24명의 장로들이 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이미 공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4절을 꼭 살펴보면 1절의 말씀과 함께 이미 휴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구약 성도들은 모두 7년 환난기가 끝난 뒤에 부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6장 19-21절, 욥기 19장 25절, 다니엘서 12장 1-3절과 13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 4장의 24장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받은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서 이 7년이라는 기간에 땅에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역대기상 24장 1절-19절을 보면 다윗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그들을 24계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24계열은 제사장 체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벤전2:9; 계1:6) 24장로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 체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1.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성경대로 믿으면 당연히 환난기 이후에 1,000년 동안 지속하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비롯해서 거기서 나온 장로교 등 개신교는 대개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를 주장합니다. 무천년주의는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해 준 어거스틴이 만든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현재의 교회 시대(계시록20:1-6)이며, 사탄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기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의 관점이다.

그들이 믿는 천 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통치가 아닌 하늘의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 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미래에 다가올 천 년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시록 20장에서 묘사된 것이 교회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인지, 즉 그 천 년이란 수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어렵פות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이 성취되는 오랜 기간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즉 재림의 때가 오면 육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몸과 영이 다시 결합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벌(永罰)에 처해진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바로 이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며 마지막 심판 직후의 영원한 상태는 영원히 계속된다.

어거스틴은 연옥, 마리아 숭배 등의 이단 교리를 만든 장본인이며 그는 ‘신국’(神國)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에서 천주교회가 다스리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론을 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중세 암흑시대의 1,000년 이상 로마의 교황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역시 천주교회에서 배운 대로 무천년주의의 틀에서 세상 역사를 이해하였고 그 결과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 통치를 구현하려던 칼빈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칼빈은 프로테스탄트 교황으로서 4년 통치 기간에 무려 58명을 학살하였고 그중 35명은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에 근거해서 칼빈주의라는 이론 철학을 만들어 제네바 시민들에게 강요하였고 자기의 이론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처형하면서 극도의 독재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근간으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개혁주의 등이 동일하게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고 이들은 한결같이 유대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약성경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비유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청교도들 즉 존 오웬, 매튜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 폴 워셔, R. C. 스프로울, 마크 데버 등도 성경의 예언에 관한 한 천주교회의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신봉하는 분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에드워즈든 그 누구든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들의 다른 것은 존경할 수 있어도 일관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들의 견해는 쓸모없는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무천년주의에 기반을 둔 칼빈의 언약주의는 1948년 5월에 중동에 이스라엘이 재건됨으로써 마땅히 폐기되었어야 할 이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유대 정서’(Anti-semitism)가 기승을 부려야 하므로 유대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신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후 500-1500년경에 어거스틴에게서 나와 칼빈이 정착시킨 언약주의는 말 그대로 천주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만든 이런 이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라(요 14:16-17, 16:13).

한편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유포피아를 건설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론으로 대개 인본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다음 글도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천 년이 흐른 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며, 그 결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간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해지면, 점차적으로 ‘평화와 의’의 천 년 시기가 이 땅 위에 도래하게 되고, 정확한 수치로서의 천 년은 아니지만 그 천 년만큼의 오랜 세월을 의미하는 기간이 지속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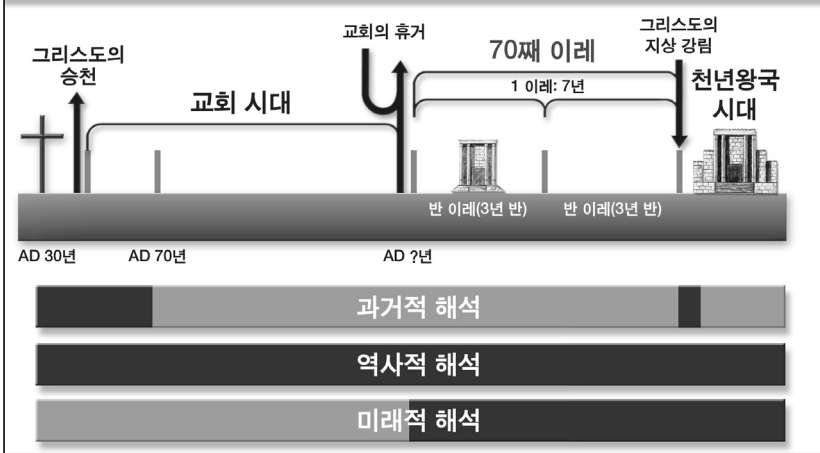
후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천 년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재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이 이뤄진다.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후천년설은 세상에 점점 평화와 의가 풍성해진다고 보았다. 만약 세상에 전쟁과 갈등이 점점 사라져간다면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후천년설은 하나의 바람에 불과할 것이다.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보통 전천년주의(Pre-millennialism)라 불립니다. 사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이므로 ‘주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미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전천년주의’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논하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해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개혁주의자라 불리는 장로교인들의 일부가 수용하는 이론으로서 역사적 전천년주의(Historical-millennialism)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는 것은 맞는데 계시록 4-19장의 일들은 마지막 7년 환난기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계시록의 1,260일이 1,260년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지배한 중세 1,260년이 곧 계시록의 주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견해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19세기에 나타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해서 세상의 끝이 1844년 10월 27일에 임한다고 주장을 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이것을 대실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론을 수정해서 제7일 안식교회라는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 예언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법



여하튼 마르틴 루터, 이삭 뉴턴, 매튜 헨리, 반즈 주석의 저자인 엘버트 반즈, 그리고 최근에는 플러 신학교의 조지 래드, 아일랜드의 이안 페이즐리 등이 이런 식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무계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의 일곱 개 변천기를 보여 줍니다. 일곱 봉인은 사도 요한 시대부터 4세기경까지를 말하고, 일곱 나팔은 5세기에 이교도들이 서방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트 족의 로마 침략, 반달 족의 지중해 침략, 훈 족의 북로마 침략, 오스만 터키의 동로마 제국 점령 등이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금병 심판은 프랑스 혁명, 이슬람의 확장,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교황이고,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교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 이론이 허구 그 자체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오직 교단 신학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으므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대로 믿으면 세대주의자<sup>7)</sup>로 분류가 되므로 이들은 어정쩡하게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한 체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일들은 아직 한 번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 세대주의란 여기서 소개하는 것처럼 문맥에 맞게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신학 체계를 가리킨다. 성경 말씀 중심의 침례교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신학 체계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

## 천년왕국의 필요성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개입으로 그것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마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반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지만 결국 그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일 즉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때 즉 천년왕국 통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불평 및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들 중에서는 타고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천년 동안 바닥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 년이 끝나서 마귀가 풀려나자 ‘이때다’ 하고는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무리들이 마귀를 따르며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반역자들은 다 천년왕국이라는 지상의 유토피아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 주시고자 요점은 첫 사람 아담의 피를 입은 사람은 비록 마귀가 없는 완전한 환경인 천년왕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한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도 천년왕국이 필요합니다.

## 과거주의자들

계시록과 관련된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이레인 7년 환난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둘째는 위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설명한 대로 계시록의 예언들이 교회의 설립 이후로 역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사적인 견해입니다. 셋째는 환난기가 AD 70년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이것 역시 장로교의 많은 분들이 믿는 사적 견해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이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때 모두 성취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모두 과거의 일로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은 과거주의자(Preterists)라 불립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王權)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마 16:28).

위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과거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후 70년에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의하면 예수님께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직접 땅에까지 내려오시므로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습니다(마24:25-30; 계1:7).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2.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마24:31; 사43:5-7; 겔11:14-18; 36:24; 렘16:14-15; 23:7-8; 31:7-10).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3.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땅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사2:4; 미4:3; 시46:9; 슥9:10).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4.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행1:6). 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사9:7; 렘17:25; 23:5-6; 33:15; 호3:4-5; 암9:11-15; 눅1:32-33).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어떤 왕도 왕좌에 앉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5.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구출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렘30:7-9; 겔34:25-31).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40년 전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큰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6.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의 성전이 그분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겔37:26-28; 40:5-43:27).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성전은 파괴되어 그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체계가 확립되고 짐승의 희생을 다시 바치게 됩니다(겔44:1-46:24).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짐승의 희생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열두 지파의 수대로 열두 개로 나누어 소유합니다. 물론 이렇게 12지파 별로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나누는 것과는 다릅니다. 왕국에서 열두 지파가 차지할 몫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7장 13-4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지파는 성전의 북쪽을 차지하고(겔48:1-7) 나머지 다섯 지파는 남쪽을 차지합니다(겔48:23-29).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살아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온 세상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 뒤 1,900여 년이 지나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유대인 국가를 세웠습니다.

9.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화평의 메시지가 있습니다(사52:7-10). 이 메시지는 화평의 소식과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한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소식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나쁜 소식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과 파괴와 멸망과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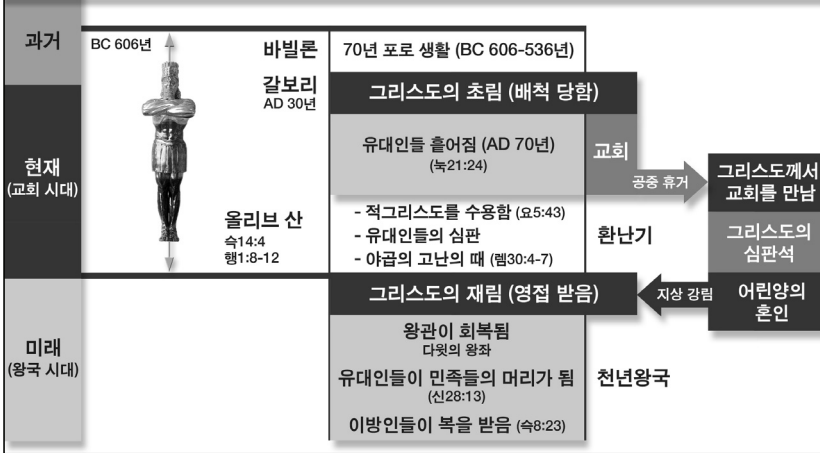
10.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사35장). 이때에는 사마이 옥토가 되고(1-2, 6-7절)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며(3-4절) 다리를 절거나 못 보거나 못 듣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5-6절) 들짐승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9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주후 70년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침략에서 겨우 벗어난 유대인들마저도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한숨을 갖게 되었습니다(사35:10 비교).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목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6-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변형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실제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권능 있게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일을 예표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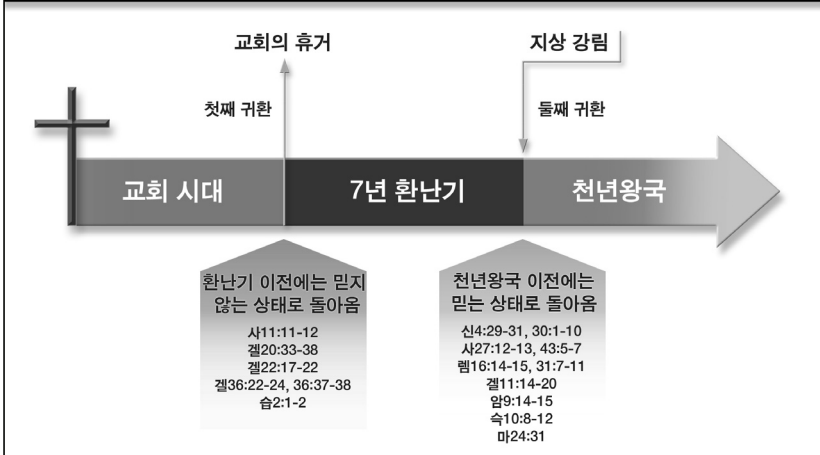
## 12. 왜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차이의 핵심은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비유로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런 상이한 신학체계를 간단히 세대주의와 언약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8)</sup> 바로 이 점에서 세대주의는

#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



#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 귀환



8)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성경 바로 보기>와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라며 또 다음의 기사들도 보기 바란다.  
<http://www.middletownbiblechurch.org/reformed/reformed.htm>

언약주의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언약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회의 어거스틴 신학에서 나와 칼빈을 거쳐 정착된 ‘이스라엘 대체 신학’입니다.

칼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에 불과했고 그래서 전 유럽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돌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심지어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나온 성경 주석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따라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줄기차게 외쳤고 때가 이르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과 같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머지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16세기 칼빈 시대의 언약주의라는 틀에 박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영적으로 보려는 시도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을 강조하는 세대주의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을 키워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살다 보면 구분해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것들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바로 나누어 보면 이 시대에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취해서 이 시대에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구약성경을 QT 용으로 읽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주어진 대상과 그 말씀의 1차적 의미 즉 문자적/문법적/역사적 의미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영적으로 내 생활에만 적용하려는 QT 식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차적인 뜻을 모른 채 내게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마다 같은 구절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을 강해해도 목사마다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1차적으로 단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끝으로 세대주의가 배격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온 세상에 보여 준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친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귀의 증오는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일으켜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울수록 점점 더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에게 영원토록 조건 없이 주신 그들만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학 체계는 세대주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체계는 항상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천주교 신학과 유사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중동에서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약의 예언을 이를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임을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고양되고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정부나 민족이나 신학 체계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은 그 민족이 창건된 이래로 전혀 없었던 대규모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렘 30:7; 단 12:1; 마 24:20-22).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을 우리의 주변 상황과 신학 체계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권리를 옹호하는 세대주의 신학 체계가 어떤 비난을 받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신학 체계입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정형화된 신학 체계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하나의 간결한 형태로 모아 놓은 성경 그대로의 신학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100% 옳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약에 기록된 참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풀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2:3).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르게 읽고 시대와 대상을 구별하여 바르게 해석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갈6:16).

### 13. 휴 거

휴거(Rapture)는 라틴어 ‘라페레’(Rapere)에서 나왔고 이 라틴어는 살전4:17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그리스어 ‘하르파즈’(harpaz)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면 그 당사자는 극치의 황홀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rapture’는 그런 황홀한 감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 일은 사실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와 비슷한 사건이 가장 먼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는 복음 전도자 빌립도 가자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뒤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간 적이 있는데(행14)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그 경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 역시 하늘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는 이스라엘이 출산한 사내아이 즉 메시아가 채여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 모든 사건은 위로 채여 올라가는 것이며 이런 현상을 한자로 표현하면 다 ‘휴거’(擡舉)입니다. 즉 휴거는 끌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는 틀리고 ‘공중 들림’으로 써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의견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휴거는 정확하게 ‘위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뜻하므로 성경적 정의와 동일합니다.

이제부터는 휴거의 여러 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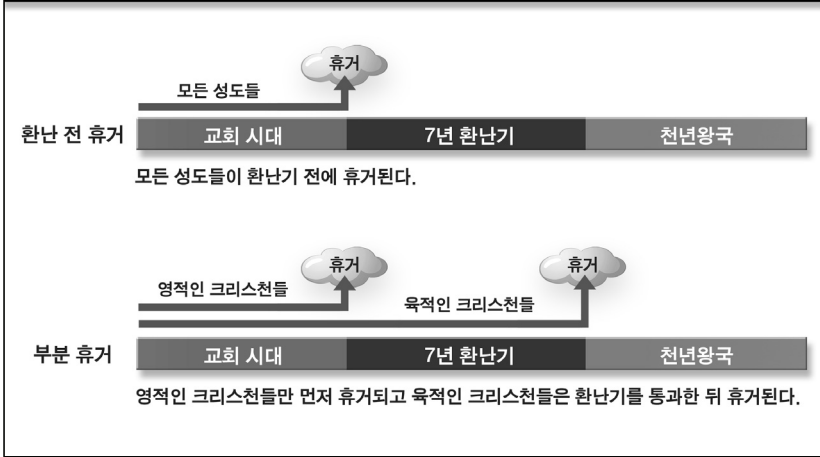
#### 1. 환난 전 휴거(Pre-tribulation rapture)

이것은 7년 환난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곧 증명하겠지만 성경은 이것만이 진리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 2. 부분 휴거(Partial rapture)

이것은 7년 환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독실한 자들만 휴거를 받고 나머지는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휴거를 받아 환난기를 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 휴거의 견해들 (1)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좀 더 깨끗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의 구원이나 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환난기에는 말 그대로 준 지옥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기를 피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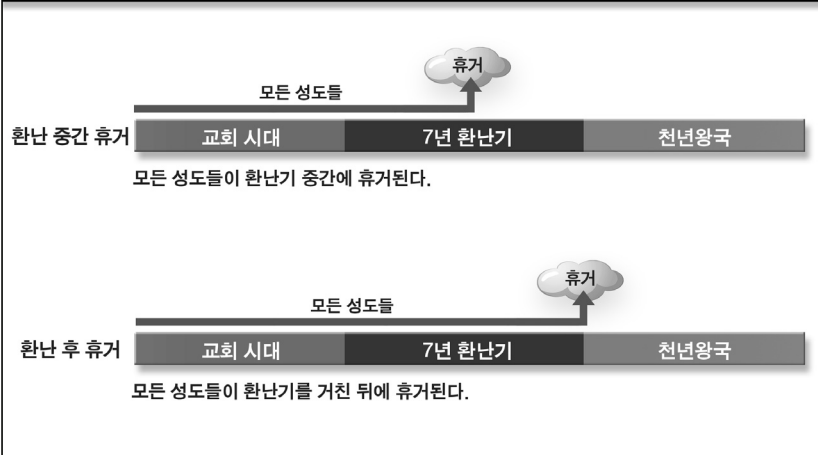
땅에서 7년 환난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신랑 되시는 어린양 예수님의 혼인 예식이 치러집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분의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부는 신약시대에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는 성숙한 이들도 있고 갓 태어나 미숙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속한 지체는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까지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가 완성되고 신랑 되신 어린양의 혼인 예식이 거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도들은 휴거되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행위에 따른 보상을 달리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바울을 포함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이처럼 보상이라는 상대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구원과 휴거라는 절대적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롬8:1-2).

## 휴거의 견해들 (2)



그래서 고전15:51은 나팔소리가 나매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휴거받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물론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으나 나팔소리가 날 때 휴거받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나팔소리가 언제 나든지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확실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다미 선교회나 신부 단장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흰옷 입고 지성으로 한밤중에 모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비록 밤에 잠을 잔다 해도 오대양 육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에 상관없이 다 들려 올라갑니다. 환난기는 오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진노의 기간입니다.

### 3. 환난 후 휴거(Post-tribulation rapture)

이것은 7년 환난기를 다 거친 뒤에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견해는 성경적으로 큰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가 7년 환난기를 통과하고 휴거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휴거를 통해 몸이 변화되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순식간에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또한 7년 환난기가 끝나면서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므로 유향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고 말하므로 교회가 7년 환난기 전체를 통과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또한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휴거받아 위로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다시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악인들을 처벌한 뒤 의인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휴거가 있다고 말하므로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은 스스로 만든 울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7년 환난기 전체를 통과한 뒤 휴거받는다든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 4. 환난 중간 휴거(Mid-tribulation rapture)

이것은 7년 환난기의 한중간에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로 채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견해로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계시록의 일곱 봉인과 여섯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탄이나 사람의 진노이고 환난기의 한중간에 올리는 일곱째 나팔 이후의 재앙들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곱째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전15:51).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결과입니다. 환난 중간 휴거를 포함해서 환난 전 휴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견해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의 왕국 프로그램과 신약의 교회 프로그램을 겹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사도 바울의 진술과 같이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는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이레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교회 시대의 후반부와 환난기는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뒤에 이스라엘의 왕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난기가 옵니다.

또한 환난 중간 휴거의 경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는 때부터 정확히 1,260일 되는 시점에 휴거가 발생합니다. 즉 이 견해대로라면 휴거가 발생하는 날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고전15:51처럼 휴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언제라도 심지어 오늘 저녁이라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휴거의 임박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 중 일곱째 나팔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을 언급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허공에 대고 말한 셈입니다. 계시록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후로 30-4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은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모든 단어의 뜻은 앞뒤 문맥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첫째와 마지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5-49절에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원수라는 말도 나옵니다(26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나팔과 이것과 대비되는 여기의 마지막 나팔을 조사해서 비교해 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출19:10-20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모임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때에 나팔소리가 울리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에 닿기만 해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사람을 정죄하여 죽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즉 율법의 직무는 사망의 직무입니다(고후 3:7-9). 이것은 물론 모세가 가져온 것입니다(히12:18-21).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나팔은 사망을 누르고 이기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집니다(고전15:54). 바로 이런 차원에서 첫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을 비교한 것입니다.

또한 고전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절대적 의미의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사실 환난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도 나팔소리가 있습니다(마 24:29-31). 일곱 나팔이 울린 이후에도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의 나팔이 적어도 1,000번은 더 울립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sup>9)</sup>

## 5. 진노 전 휴거(Pre-wrath rapture)

이 견해 역시 환난 중간 휴거와 비슷하며 다만 휴거의 시기가 환난기의 사분의 삼쯤 되는 지점 즉 일곱 금병 심판이 시작되는 때라는 점만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이 견해는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람이나 사탄의 진노이고 일곱 금병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일곱 봉인 심판을 보면 이때의 재앙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견해 역시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sup>10)</sup>

## 환난 전 휴거의 증거들

### 1.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2-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일차적으로 요한 당시에 존재하던 실제 교회였고 또 동시에 일곱이라는 완전 수가 보여 주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교회를 예표로 나타냅니다. 그런 교회들 중의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문맥으로 보건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 - 물론 여기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만의 모임임 - 의 예표입니다. 주님께서서

9) <http://bible-truth.org/mid-trib.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proph/prewrath.htm>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문맥이 이를 지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계3:10).

여기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은 역사상 아직 지구에 임한 적이 없고 앞뒤 문맥으로 보건대 환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생길 때 교회를 그 시간에서 면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여기에는 ‘keep ~ from’이라는 관용구가 나옵니다.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은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에 세뇌되어 평범한 영어 문장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듯이 ‘keep’과 ‘from’은 바늘과 실처럼 꼭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keep’은 ‘prevent’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 kept him from going to church.”라고 하면 “내가 그를 교회에 가는 길에서 지켜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을 떠나가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And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이 말은 “성경은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는 너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keep’과 ‘from’은 서로 붙어 다니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3:10도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서 교수는 학기 내내 과제물을 잘 내고 중간고사도 잘 치른 학생들에게 “너희는 이번 기말고사 면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시간에 와서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볼까요? 그러면 교수는 답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 줄까요? 아니면 그들은 아예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 교수가 하는 말이 바로 “I will keep you from the final exam.”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이미 자신의 피에 의해 깨끗하게 되어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받을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 2. 계시록의 구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은 요한이 본 것들을, 2-3장은 요한 당시의 일들, 그리고 4장 이후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3장에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는 교회라는 단어가 총 20회(단수 7회, 복수 13회) 나옵니다.

단수 ‘교회’: 계2:1, 8, 12, 18; 3:1, 7, 14

복수 ‘교회들’: 계1:4, 11, 20(2회); 2:7, 11, 17, 23, 29; 3:6, 13, 22; 22:16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지만 환난기 이후의 일들을 묘사하는 4장부터는 교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2장 16절은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언급은 이제 끝입니다. 즉 환난기가 시작되는 4장부터 그 이후에는 교회가 그 기간과 전혀 상관없으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환난기에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17절을 보면 환난기에 엄청나게 큰 무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서서…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계7:9,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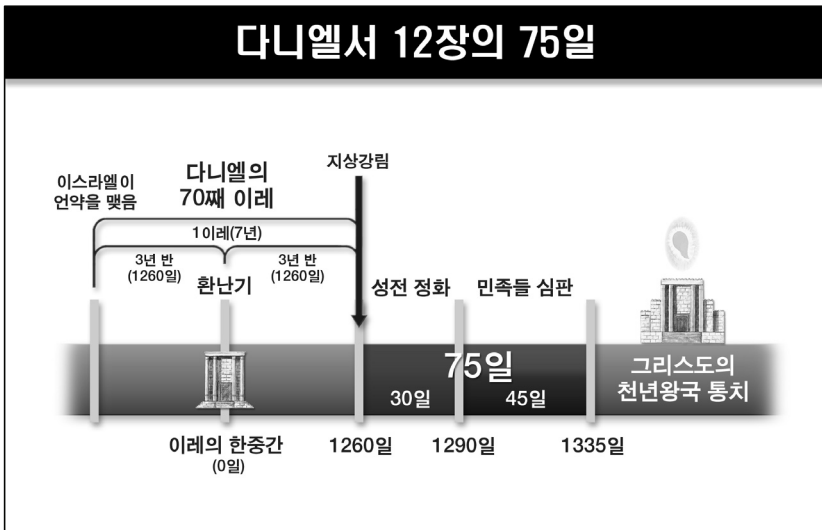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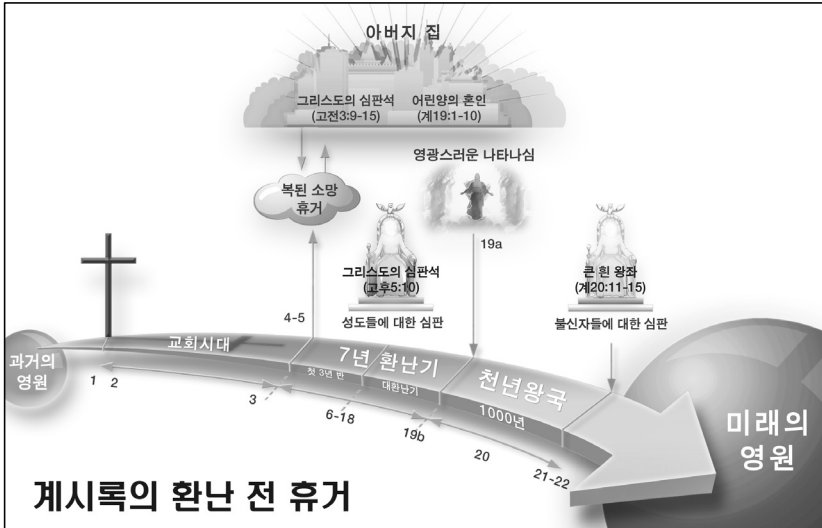
큰 환난에서 나온 이들은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을 구원받은 신약 성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는 복수로 ‘성도들이’ 35회 나오는데 이들은 다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7장 18-27절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에 다음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27:50-53).

아직 신약시대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여기의 성도들 역시 구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사도행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은 환난기 성도들입니다.

### 3.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위에서 여러 차례 보여 드렸듯이 환난기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역사상 유일무이한 고통의 때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sup>11)</sup>



11) 미국 미들타운바이블 교회에서는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잘 정리하여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운영하는 'Way of Life'도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칩 출판사 역시 훌륭한 자료를 제공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
- <http://www.wayoflife.org/>
- <http://www.chick.com/>

[그들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살전1:10).

데살로니가전후서는 재림과 휴거에 대해 자세히 보여 줍니다. 살전1:10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께서 이미 그들을 진노에서 건져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앞으로 그들을 진노에서 건져 내실 것이 아니라 이미 건져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당시에 진노가 임해도 그 전에 휴거받아 안전합니다. 개역성경은 이처럼 중요한 구절을 “이분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로 오역하여 마치 예수님이 그때의 진노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만들며 큰 혼동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은 그들을 이미 진노에서 건져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의 진노는 환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요, 어린양의 진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살전5:9).

여기의 구원은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도록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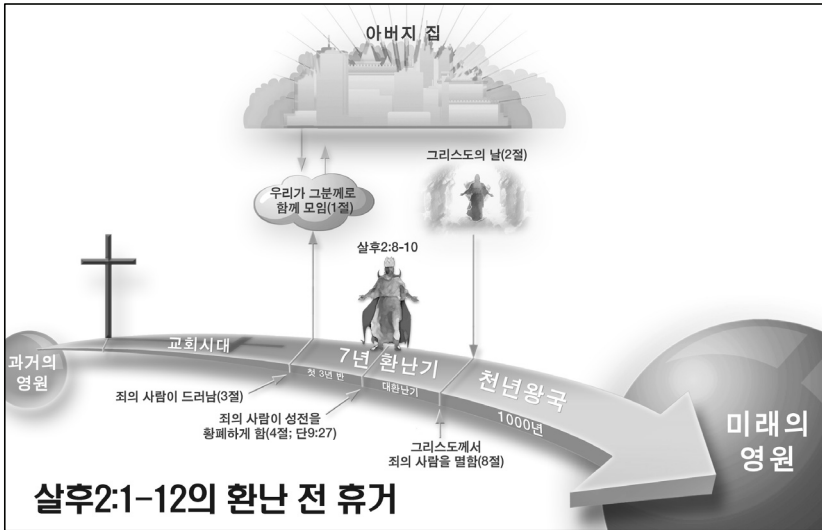
구약시대 히브리 대언자들은 환난 혹은 고난에 대해 50여 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풀면 관련된 모든 구절들이 짝을 이루면서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받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디도서 2장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2:11-13).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분명히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지상 강림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저 복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림의 첫 단계인 휴거입니다. 그 소망이 복된 소망이 되려면 환난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환난기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무서운 때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된 소망 즉 휴거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모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은 다 부활하거나 휴거받아 셋째 하늘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복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2절도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살후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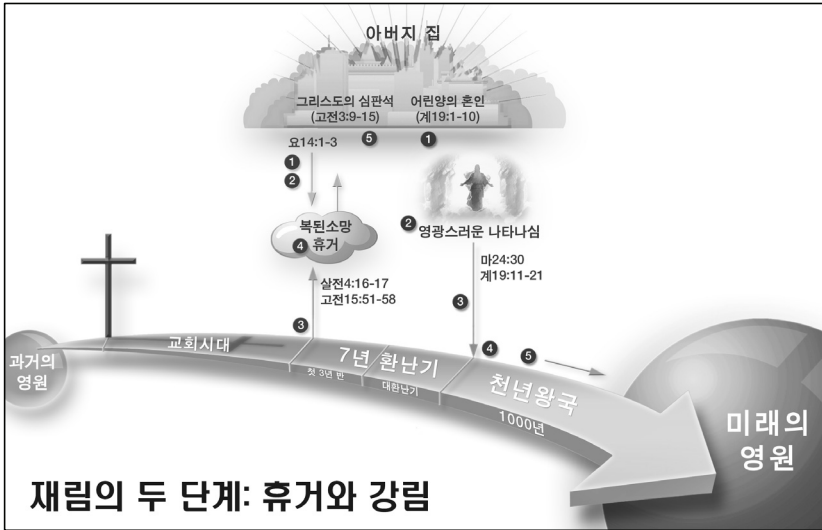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은 다름 아닌 휴거입니다. 그 일 이후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땅의 불신자들에게 진노를 내뿜으며 하늘로 데려간 자신의 신부와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날이 시작되면서 3-4절에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환난기 전에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되는 순간 모두 부활하거나 휴거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저 복된 소망’은 환난 전 휴거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양의 혼인, 땅에서의 진노 등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됩니다. 또 그래야만 성도들도 어떤 표적을 구하지 않으며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항시 고대할 수 있습니다.

#### 14. 재림의 두 단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보았기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시고(눅24:25-26)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초림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초림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그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가 초림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때가 초림일까요? 초림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뒤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총 33년 반이 초림입니다. 이 초림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비밀리에 오셨다가 올리브 산에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환난기 시작의 한 부분도 아니고 끝도 아니며,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죽은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살아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채어 올리시는 휴거부터 환난기가 끝나면서 친히 올리브 산에 발을 내려놓으실 때까지의 약 7년 기간이 재림입니다. 재림에서도 예수님은 처음에 공중에 비밀리에 오시고 끝에는 올리브 산에 공개적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이 기간 전체를 재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때에는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므로 이것을 간단하게 ‘공중 강림’이라고 부르며 약 7년 뒤 공개적으로 오실 때에는 땅에까지 내려오시면 자신을 드러내시므로 ‘지상 강림’ 혹은 ‘지상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환난기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7년 환난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초림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적 예언이다.
이미 일어났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 발생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요일4:2).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요14:3).
십자가	왕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죽기 위해 오셨다.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마1:21).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계19:16).
당신은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분을 심판자로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요3:17).	사람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다(유14-15)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다(요1:11).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맞을 것이다(슌12:10; 마23:39; 롬11:25-27).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눅2:7).	정복자로 오실 것이다(계19:11-16).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마21:1-5).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권능있게 임하실 것이다(계19:11).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엡2:13-19; 롬5:1).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오실 것이다(사9:6-7; 슌9:10).
초림 당시 정권은 사람의 손에 있었다(헤롯 대왕, 로마제국 등).	재림 때에 정권이 그리스도의 손과 어깨에 놓일 것이다(사9:6-7).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마27:20-25).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죽이실 것이다(살후1:7-10).

재림의 첫 단계인 공중 강림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 신부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른 뒤 7년 뒤에는 이 신부와 함께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공중 강림(휴거)	지상 강림
시기	환난 전(계3:10), 정확한 시기 모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	환난 후(마24:29-30),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휴거 이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뒤 7년(2,520일) 후
속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일어난다(고전15:52).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일어난다(마24:27; 계1:7).
표적	표적은 없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많은 표적들(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8절에서 이 표적들에 대해 언급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는지 여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요일3:2).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계1:7). 이 광경을 놓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마24:24-27).
장소	공중(살전4:17)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	지상(슌14:4; 행1:11)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에 내려오신다.
신자와 불신자	믿는 이들은 하늘로 갈 것이고(에녹처럼), 불신자들은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살전4:13-18).	믿는 이들은 땅에 남아 있을 것이고(노아처럼) 불신자들은 심판에 넘겨질 것이다(눅17:34-37).
목적	신부인 교회를 영접하는 것(요14:3)	자신의 왕국을 받는 것(눅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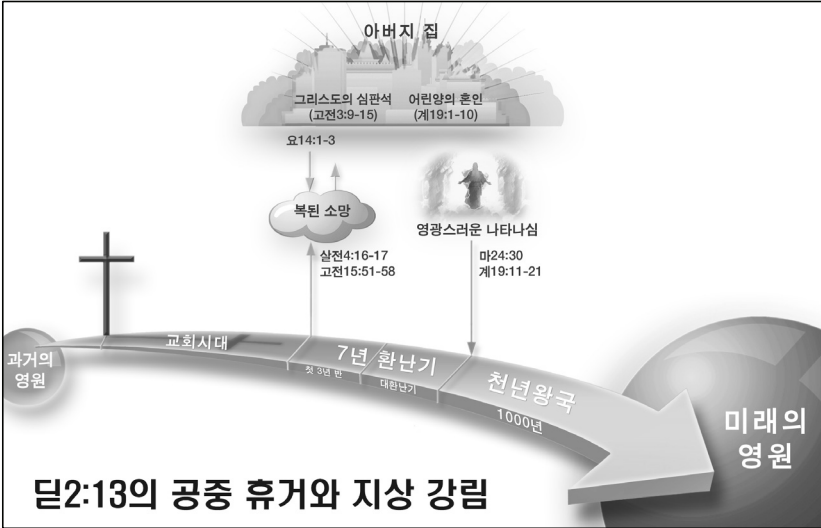
###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해야 재림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비교

	공중 휴거/ 옮겨짐	지상 강림/ 왕국 확립
1	모든 성도들이 채어 올라감	채어 올라가는 일이 없음
2	채어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감	채어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옴
3	땅이 심판받지 않음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됨
4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함	예언된 표적들, 환난기 이후에 발생함
5	구약에는 없음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음
6	성도들에게만 해당됨	은 인류에게 영향을 줌
7	주의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남	주의 진노의 날을 끝냄
8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탄이 결박됨
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심
10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심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
11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봄
12	환난기가 시작됨	천년왕국이 시작됨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지급하고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끝난 뒤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서 거할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일 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 비유는 이때의 일을 보여주는데 거기의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은 이미 결혼하였고 이들은

결혼한 신랑이 돌아오는 것을 맞으러 나갑니다(눅12:36).

정혼 후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혼인 방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7일간 거기 머뭅니다. 이 7일 동안 신부는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7일 연회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 만인에게 공개하면서 결혼이 공식적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정혼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워 주신 새 상속 언약입니다.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처소를 마련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의 교회 시대입니다.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아무도 모르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휴거를 통해 언제 데려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랑은 처소만 예비되면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늘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 집에 이른 뒤 치르는 혼인 예식은 계시록 19장 7-9절에 나와 있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끝난 뒤 신랑이 신부를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혼인 잔치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그 일은 반드시 7년 환난기 이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40절을 보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의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 주리라(눅12:35-36).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강림 때의 일로서 마24:45-51과 조화를 이룹니다. 7년 환난기 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고 결혼식을 끝낸 뒤 다시 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랑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 제자들은 결혼 풍습을 잘 알므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환난기가 끝나는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15. 노아의 때와 같다

서두에 종말의 징조들을 여럿 언급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마24:37). 노아의 시대에 대해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sup>1</sup>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sup>2</sup>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sup>4</sup>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sup>5</sup>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6:1-5)

사람들은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주로 5절 말씀 즉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사악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여인들과 결합하며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때에 마귀는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의 출생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고 그 결과 땅에는 폭력이 가득하였습니다(창6:11-12).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욥1:6; 2:1; 38:7)과 여자들의 비정상적인 결합에 대해서는 유다서 5-7절과 베드로후서 2장 4-6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sup>12)</sup>

이들의 죄악이 심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와 짐승들을 멸절시키고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의 짐승들만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전자 조작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성애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

12) 천사들과 여인들의 비정상적인 결합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10만-30만회나 되는 미슬러(chuck Missler)와 퀘일(Steve Quayle)의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라며 문서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천사와 UFO 바로 알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믿음은 요세푸스를 비롯한 정통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라는 개념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궤변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천주교와 거기서 나온 개신교는 대부분 어거스틴의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 <http://www.youtube.com/watch?v=oKjd3CV0MCs>, Chuck Missler  
- Genesis Chapter 6 Sons of God Nephilim Rephaim Anakim Emim  
- <http://www.youtube.com/watch?v=LAQQfzO2wg0>, Genesis 6 Giants, Mighty Men of Old - Steve Quayle - Haggmann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납니다.

42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단2:42-43).

42-43절은 이 땅에 세워지는 마지막 왕국 즉 금 신상의 넷째 왕국을 묘사합니다. 44절을 보면 넷째 왕국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이 넷째 왕국의 맨 끝은 쇠와 진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매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여기의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의 ‘그들’이 사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합으로 생기는 하이브리드는 그들과 사람 사이의 어떤 중간 존재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근거로 이 구절의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을 보면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 내려옵니다(계12:9, 13).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마귀의 악한 천사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일이 문자 그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은 위험하고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며’로 또다시 오역하여 전혀 다른 뜻을 갖게 하였습니다.

## 16. 베리칩과 짐승의 표

짐승의 표라는 말은 계시록에 여덟 번 나옵니다(계13:16, 17; 14:9, 11; 15:2; 16:2; 19:20; 20:4). 그 여덟 번 중에는 ‘짐승의 표’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그 표’ 혹은 ‘그의 표’ 혹은 ‘그의 이름의 표’라고 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을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계13:16)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계20:4).

계13:16과 20:4를 보면 그들은 그 표를 오른손 ‘안에’(in)나 이마 ‘안에’(in) 혹은 이마 ‘위에’(on)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in’이나 ‘on’은 동일한 그리스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의 ‘in’이 피부 속을 뜻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in’이 손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면 아마도 그 표를 손이나 이마의 어느 부위에 집어넣은 뒤 불룩하게 조금 튀어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표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표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13:16-18).

계시록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 비슷하게 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즉 사탄과 그의 아들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16절의 ‘그’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사탄의 일을 실행하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계13:11-14). 18절을 보면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환난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한 남자이며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이니라’라고 오역하여 마치 그 수 666이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666은 환난기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는 한 남자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환난기에 매매를 하려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짐승의 표 외에도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수가 따로 있고 이 셋 중 하나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셋이 같은 것이라고 보며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16:2를 보면 이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현세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표의 목적을 물건 매매로 제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표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을 받는 자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계 14:9-11).

그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과 사탄에게 연합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기 위한 도구 혹은 통로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영원무궁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사탄을 창조자 하나님 이상의 신으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는 매매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계14:9, 11; 16:2; 19:20; 20:4가 보여 주듯이 마귀 숭배의 표입니다. 이것이 그 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표는 매매와 관련해서는 한 번 언급되었지만 마귀 경배와 관련해서는 무려 다섯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에 타락할 때부터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사14:13-14).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분께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마4:9-10). 그래서 그의 화신(化身)인 적그리스도는 환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를 받습니다(살후 2:4). 그러므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마귀를 하나님 혹은 그 이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호수의 심판을 영원무궁토록 받습니다. 즉 짐승의 표의 1차 목표는 매매 규제가 아니라 마귀 숭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였으므로 현재 크리스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리칩(VeriChip)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며 그것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은 베리칩을 받으면 아예 구원을 잃는 듯한 뉘앙스로 부정적인 말들을 확정적으로 쏟아냅니다.

요즘 일반 뉴스에서도 국제테러방지과 건강 검진 등을 위한 의학용 바이오 칩 등이 소개되곤 합니다. <National Geographic> 잡지나 <Discovery Channel> 같은 영화 제공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심지어 댄스파티를 하는데도 이런 표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의 후속으로 생체 바이오 칩 개발과 이를 통한 원격 의료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은 외딴곳에 사는 사람들과 고령자들에게 원격 진료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이 현실화되어 생체 칩이 몸에 삽입되면 로봇을 원격 조정해서 유명 의사에게 직접 수술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기술은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sup>13)</sup> 다만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실제로 시행되려면 먼저 여러 사람들에게 실증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증 실험을 통해 기술을 안전하게 확보한 회사가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면서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미래에 온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으므로 그런 점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13) 네이버에서 '원격 진료 삼성'을 치면 여러 기사가 나옴

또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재단의 한 연구팀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피임용 컴퓨터 칩을 개발했습니다.<sup>14)</sup> 가로/세로 20mm에 두께 7mm인 이 칩은 여성의 피부 밑에 이식돼 임신 억제 호르몬을 소량씩 분비해 피임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칩은 2018년 시판을 목표로 정하고 현재 임상 시험을 위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의 목표는 강제 인구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체 칩은 수술하지 않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통해 10분 정도 시술하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체 칩이 있는 사람의 정보는 스캐너를 통해 자동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 손에 이런 시술을 하면 짐승의 표로 보는 눈길을 의식해서 여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신처럼 새기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근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베리칩입니다. 여기서 '베리'는 '삽입해서 묻는다'는 의미의 'bury'가 아니라 'Verification'의 약자로서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사람에게 심은 뒤 그 안의 RFID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의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쌀알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여러 나라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접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RFID 전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RFID 칩 기술 자체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이것을 인체에 적용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 보험 플랜이 성사가 되면 그것의 일환으로 미국 사람 모두가 RFID 칩을 받아야

14) Google에서 'Birth Control Chip Bill Gates'를 치면 여러 기사가 나옴.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2억 인구의 인도가 자기 국민을 계수하기 위해 RFID 칩을 사용하는 주민 신분 확인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가 받을지도 모를 이런 생체 칩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일까요?

일단 결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칩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환난기가 시작되어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배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받게 될 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몸에 그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칩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리칩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텔레비전 부흥사들, 선동가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며 돈을 긁어모읍니다. 성도들은 이런 데 현혹되어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바코드와 신용카드가 나올 때에도 그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돈을 긁어모은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19장의 환난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리칩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가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짐승의 표는 영적인 표가 아니고 물리적인 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그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언가를 넣거나 붙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베리칩 기술이 오랜 시간 인체에 삽입되어 연구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기술이 무르익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부터 그런 칩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나중에 환난기에도 그런 칩을 받을 때 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칩을 받도록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베리칩 자체는 결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베리칩은 매매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짐승의 표의 1차 목적은 매매가 아니라 마귀 숭배입니다. 지금 그런 표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 숭배의 목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대개는 의학용이나 국가의 안전 체계 유지 그리고 신원 확인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임한 시대의 징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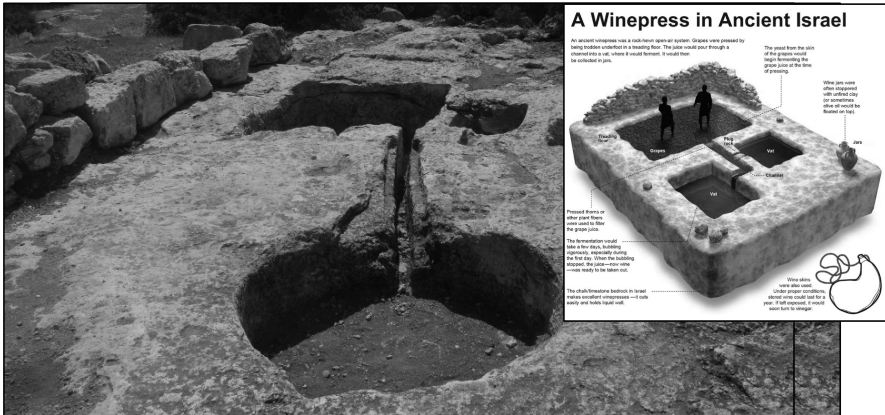
## 17. 포도즙 틀 심판

7년 환난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 세상에 쏟아지는 심히 무서운 때이며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환난기의 극심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 줍니다. 특히 환난기 끝에는 포도즙 틀 심판이라는 공포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계14:19-20).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는 시점 즉 환난기의 맨 끝 부분에서 천사는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졌습니니다. 그러자 누가 그것을 짓밟아 으켰더니 피가 나와 말의 목까지 차올라오며 300km를 흘러갔습니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에 ‘포도즙 틀’(wine press)이라는 심판 도구가 많이 나옵니다.<sup>15)</sup>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은 조그만 틀이 아니라 성인 남녀 20명이 들어가 발로 밟아 포도를 으깰 수 있는, 땅을 파서 만든 큰 틀입니다. 성경에는 지옥과 불 호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형틀이 될 것입니다.



말굴레 높이까지 피가 차서 300km까지 흘러가려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또 이 피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많은 이들이 이런 구절을 대하면서 상징적인 해석을 취하지만 성경은 이런 데서도 실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sup>35</sup> 두 여자가 함께 밭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15) 기존 성경은 이것을 포도주 틀이라고 오역하였다. 땅에 판 큰 틀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밟으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나온다.

것이며 <sup>36</sup>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sup>37</sup>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눅17:35-37).

대부분의 교회는 이 구절과 또 마24:40-41이 휴거를 말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붙잡혀가는 남녀는 휴거받는 자들이 아니고 시체들이 쌓인 데로 붙잡혀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붙잡혀가는 남녀는 어디로 갈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부터 주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내려오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 뒤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계19:15)

즉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포도즙 틀에서 사람들을 짓밟으니 그들이 으깨어져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주님은 올리브 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올리브 산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슌14:2-4).

마지막 때에 민족들의 군대들이 아마겟돈<sup>16)</sup>에 모인 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상 강림 때에 바로 이 군대들이 도시 밖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져서 짓밟히게 되며 이로써 엄청난 양의 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재림 바로 전에 주님께서 친히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아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sup>2</sup> 주의 격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sup>3</sup> 그들의 죽임 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

16) 아마겟돈(Armageddon)은 계16:16에 나오는 지명으로 '므깃도의 산'을 뜻한다. 므깃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진 데 위치하며 갈멜 산 기슭의 큰 평야에 있던 도시로 예부터 큰 살육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솔로몬의 통치 때에 강화되었으며(왕상9:15) 바로 여기에서 아시리아가 죽었고 요시아 왕도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백성으로부터 큰 애도를 받았다(왕하9:27; 23:29; 슌12:11). 이처럼 큰 살육과 연관이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7년 환난기 끝부분에 자신의 원수들을 모아 큰 살육으로 죽이실 것이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sup>4</sup>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sup>6</sup>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매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느니라...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sup>8</sup> 그 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사34:1-8).

여기서 보듯이 그 날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민족들에게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이때 죽임당한 자들의 사체들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습니다(3절). 여섯째 봉인을 뗐을 때와 같이 이때는 환난기의 마지막 때로서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해체되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4절). 이때에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에돔(이두매아)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져져서 짓밟힙니다(5-6절). 또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에서도 불신자들이 여기로 붙잡혀가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땅에 강림하시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염소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요엘서 3장에 있듯이 이들도 이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sup>17</sup> 물론 이때에도 천체의 변화가 있습니다(15절).

<sup>12</sup>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sup>13</sup> 너희는 낮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익었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sup>15</sup>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이다. <sup>16</sup>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이다(을3:12-16).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죽임을 당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가 300km나 흐르려면 긴 골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것은 거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북쪽의 아마겟돈 골짜기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골짜기는 동쪽이나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스가라서 14장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발을 디디시면 올리브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면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바로 이 골짜기 자체가

17) 대하20장에는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승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교도들이 모인 장소는 사해 서쪽의 엔게디였으며 이교도들의 심판 후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한 곳은 브라가 골짜기로 불렸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를 뜻하며 이때의 승리는 나중에 환난기 끝에 있을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예표이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적대 행위를 한 모든 이교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요엘은 이곳을 ‘판결 골짜기’라고 부르는데(을3:14) 그 이유는 여기서 이교도들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노의 포도즙 틀이 되면서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여기서 짓밟혀 피를 흘리고 이 피가 말골레까지 차오르며 300km나 흘러갑니다. 이렇게 모인 피가 예루살렘 남쪽, 사해 서쪽의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서 사해 쪽으로 흘러나간 뒤 남쪽의 에돔 땅을 지나(사34:5-6) 보스라 밑에 있는 홍해(Red sea)로 들어갑니다.

이사이서 63장 역시 마지막 때에 있을 에돔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사63:1-3).

예루살렘 앞 올리브 산의 포도즙 틀에서부터 흘러나간 사악한 자들의 피는 붉은 것을 뜻하는 에돔 지방을 거쳐서 드디어 아카바 만이 있는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붉은 에돔처럼 홍해 역시 말 그대로 ‘빨간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군사들의 죽음으로 인해 한 번 빨강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때처럼 심하게 빨강게 되지는 않았습다. 마지막 때에 드디어 그 바다는 이름값을 하면서 전체가 시뻘겋게 변할 것입니다. 에돔은 빨간 땅이고 홍해는 빨간 바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해 밑의 이 지역들이 사람들의 피로 빨강게 물들며 부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이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이 강은 포도즙 틀 심판을 보여 주는 요엘서(욘3:18), 스가랴서(스 14:8), 그리고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47장은 전 장을 할애하여 이 생수의 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sup>18)</sup>

그러면 중국, 한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다 죽임을 당해야 오직 의인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회오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는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향을 지르리라.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그 날에 주에게 죽임 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리다(렘25:30-33).

18) 포도즙 틀 심판 관련 주님의 날의 공포에 대해서는 나1:2-6을 참조하기 바란다.



예레미야서 30장 23-24절도 주님의 회오리바람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임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19-2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회오리바람은 미국의 중서부를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런 혹독한 심판이 환난기의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악인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 이사야서 40장 22-24절, 시편 58편 9-11절도 동일하게 회오리바람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 자리로 데려감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디에서라도 악인들을 회오리바람으로 날라다가 이스라엘 땅의 포도즙 틀 속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미터 높이의 피가 강을 이루며 큰 골짜기를 지나 사해를 채운 뒤 에돔을 거쳐 홍해까지 흘러갑니다.

이때에 사악한 자들이 짓밟히는 일은 저 유명한 메시아 시편인 시편 110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sup>5</sup>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sup>6</sup>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시110:1, 5-6)

여기서 1절을 보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에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의 발밑에 깔려 발받침이 됩니다. 이것은 곧 포도즙 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기간이 바로 7년 환난기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채여 올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간직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 18.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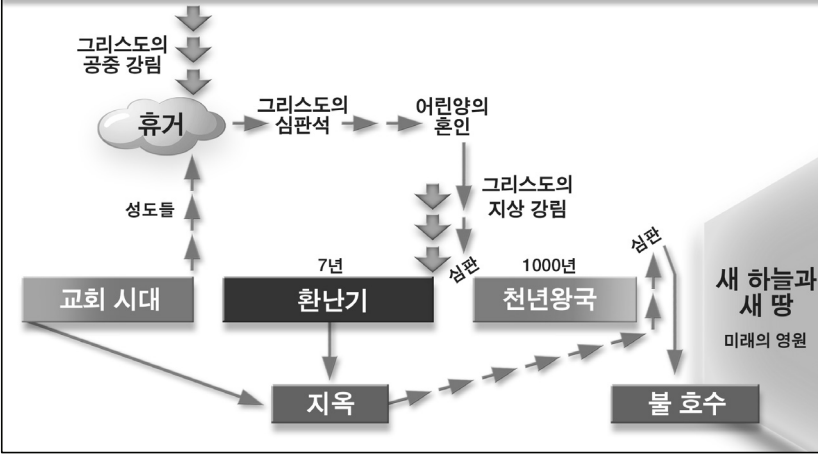
신약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생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채어 올리시는 휴거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서신서를 수신한 성도들은 자기들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고 휴거의 복된 소망 속에서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이른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교리가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2. 그러므로 지금 중동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3.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영적인 왕국이다.
3. 성도들은 애를 써서 환난기를 - 일부든 전체든 - 통과해야 휴거받는다.
4. 계시록의 144,000명은 특별히 구원받아 천년왕국을 소유할 자들이다.
5. 베리침은 짐승의 표이므로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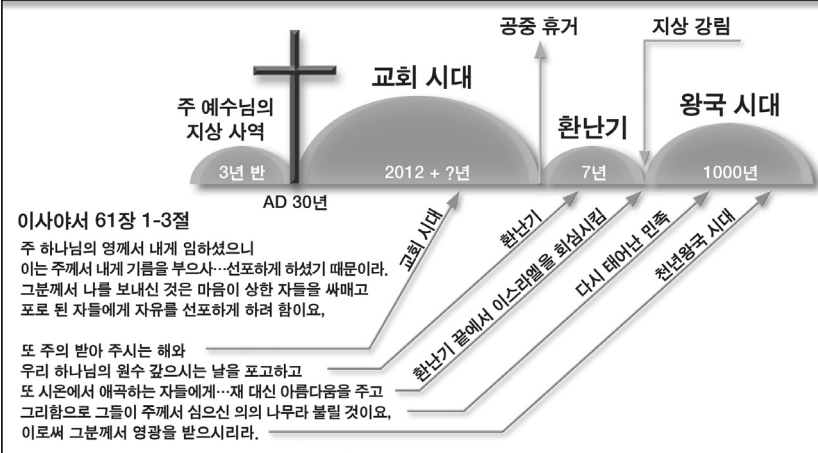
반면에 성경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매우 명백하게 다음을 보여 줍니다.

1.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과 교회 프로그램은 다르며 이 둘은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
2.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3.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다.
4. 성도들은 7년 환난기 이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늘로 채여 올라간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 7년이며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 강림과 악인들을 심판하러 자신의 신부와 함께 오시는 지상 강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6. 7년 환난기는 적그리스도가 중동의 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된다.

## 미래 일들의 개요



## 이사야서 61장 대언과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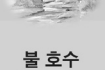



7. 그 뒤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면서 경배를 받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
8.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혹독한 대환난을 당한다.
9. 이 대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 산에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을 단숨에 물리치면서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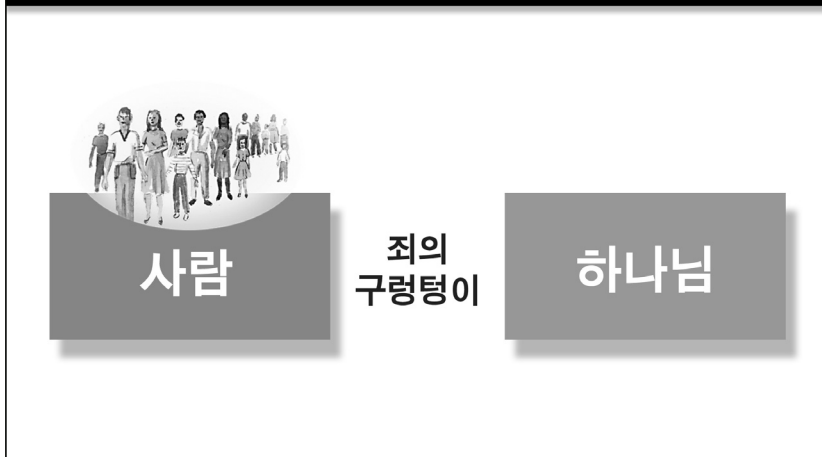


10.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다 멸하시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11. 마귀는 1,000년 동안 바닥없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1,000년이 찬 뒤에 잠시 풀려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삼켜지고 그 뒤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12.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에 세상의 창조 이후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역시 둘째 사망인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13. 그 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성도들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거한다.
14. 적그리스도의 환난기가 도래하기 전에 몸에 받는 어떤 것도 짐승의 표가 아니다. 짐승의 표의 1차 목적은 물건 매매가 아니라 마귀 숭배이므로 그의 등장 이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베리칩 같은 것은 결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15. 이스라엘의 회복 및 성전 건축, 동성애의 창궐, 진화론의 만연, 베리칩 같은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 주는 표적들이다. 그러나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16.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휴거가 언제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두 하늘로 채여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 영원의 상태

<p><b>새 하늘</b></p> 	<p style="text-align: center;"><b>새 하늘과 새 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탄은 더 이상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계20:10)</li> <li>· 바다가 없음(계21:1)</li> <li>· 사망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없음(계21:4)</li> <li>· 모든 것이 새물계 됨(계21:1)</li> <li>· 밤이 없음(계21:25)</li> <li>· 부정함이나 가증한 자나 거짓말쟁이가 없음(계21:1)</li> <li>· 저주가 없음(계22:3)</li> <li>· 태양이 없음(계22:5)</li> <li>· 성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봄(계22:4)</li> </ul>
<p><b>새 예루살렘</b></p> 	
<p><b>새 땅</b></p> 	
<p><b>불 호수</b></p> 	
	<p style="text-align: center;"><b>불 호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영원한 처소(계19:20; 20:10)</li> <li>· 불신자들의 영원한 처소(계20:10)</li> <li>· 불과 유황의 영원한 호수(계20:10)</li> <li>· 거주자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음(계20:10)</li> <li>· 영원한 둘째 사망(계20:14)</li> </ul>

## 사람의 문제



### 사람의 문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과 무식에 상관없이 사람의 문제는 한 마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단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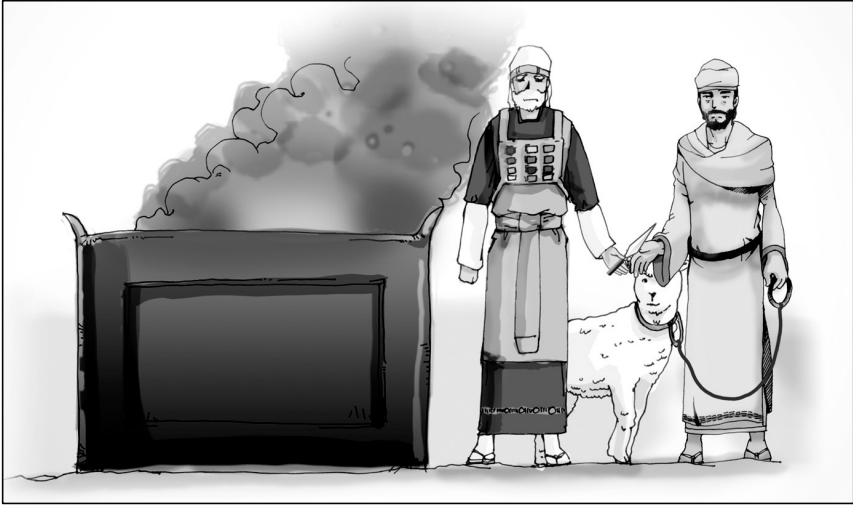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10-12, 23)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는 있지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즉 사람의 죄의 병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더 테레사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설계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 대신 속죄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창3:21)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 줍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시청각 교육으로 잘 보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의 제사장에게로 갑니다(레1:2-9).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인수하여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죄인에게 칼을 주며 짐승의 목을 찌르게 합니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몸에서 튀겨 나옵니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 불의 정죄가 있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이런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입니다(히10:4).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를 초월해 그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단 한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히9:12).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마 27:51; 히6:19-20). 그분께서 단 한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제거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히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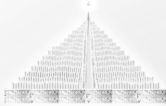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재림과 휴거 강해의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 즉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큰 평안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 만물의 회복

Ω

오메가  
시대들의 시대



새 예루살렘



야곱의 사다리

창28:10-15; 요1:51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걸음(계21:24)

새 땅

땅의 정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불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속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바르게 읽는 성경」, 김문수, 그리스도예수안에.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http://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http://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 ([www.Chick.com](http://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http://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http://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http://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로이드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뵈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시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올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올타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 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 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에텔 R.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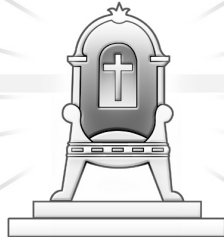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체」,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 〈기타〉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 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디.
11. 「합리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2.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3.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4.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7.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18. 「성경 신자들의 글 모음」, 김재욱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19.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성경**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BIBΛOΣ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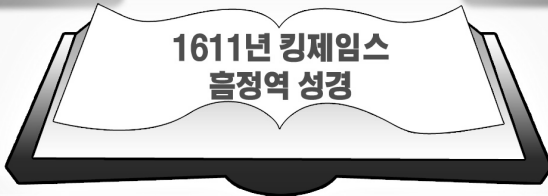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지은이 / 정동수

1판 1쇄/ 2014년 8월 25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시 남구 학익동 569-7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30-2 03230

정가 : 3,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